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일시 2023. 9. 20(수) 11:00-15:00

장소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참여  YouTube 온라인 생중계

개 회 사

‘오늘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에 함께 해 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및 대안교육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안교육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안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라는 의미지만, 이제 점점 더 그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모호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육의 수요자는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이라도 그 교육적 수요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헌법적 가치에서 보자면 배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청년의 학습의 장이 필요하고, 나아가 생애에 걸쳐서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모두의 합의를 얻고 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누려야 하니, 학교는 더 폭넓은 학습의 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얼핏 모순되는 이름을 가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교육부 위탁센터의 이름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학교밖청소년연구특임센터를 두고 있는데, ‘학교밖’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연구센터와 대안교육지원센터는 공유의 폭이 넓습니다. 오늘 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도 논의되겠지만, 그 범위는 더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대안교육 또는 학교밖의 가치를 상상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보면, 매우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이 수요자들 입장에서 복잡하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좀 더 촘촘한 연계가 필요하고,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고, 혼돈스럽게 보여도 지금까지 대안교육과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장족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일정 부분 여느 선진국에 못지않습니다. 대안교육 자체의 성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학교교육에 대안이라는 가치로부터 탄생한 것이기에 그것이 학교든 아니든 온전히 교육받을 공간으로 상호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즉 학교의 가치와 학교밖의 가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선진적인 교육으로 가는 지표가 되어야 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교육주체들이 미래적인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연구하는 데 온 열정을 다 쏟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오해섭 센터장님과 센터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박수를 보냅니다.

2023년 9월 2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김 현 철**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강득구, 이태규 의원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현철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함께 제안해 주실 발표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수요의 증가, 학교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최근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교육 내 학업중단 예방 강화와 대안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쉽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으로 현재 234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시도교육청에 등록되었으며, 더 많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로 나타난 데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안팎에서의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조망하는 한편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부도 오늘 논의된 내용에 귀 기울여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시 간	내 용	
10:30-11:00	등 록	
11:00-11:20	개회식	사 회: 강 민 개회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환영사: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20-12:20	〈대안학교〉 주제발표	대안학교의 현재 진단 및 발전 방안 발표자: 이수은 꿈키움중학교 교장 대안학교의 진단과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 토론자: 윤철경 지열학교박청소년연구소 소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주제발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발표자: 박성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0년 토론자: 강소영 사람사랑나눔학교 교장
12:20-13:20	점심 식사	
13:20-14:40	〈대안교육기관〉 주제발표	교육의 오래된 미래, 대안교육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있고 교육은 행복해야 한다 발표자: 전정일 맑은샘학교 교장 서울지역 대안교육의 성과와 과제 -서울지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토론자: 송민기 서울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
	종합 토론	“대안교육의 나아갈 방향” 좌장: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장 대안교육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배움을 조직해 나가다 김솔원 대안학교(신나는학교) 학생 대안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소고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질의응답
14:40-15:00	폐 회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목 차

주제발표

■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현재 진단 및 발전 방안 1

발표자 : 이수은 경남꿈키움중학교 교장

대안학교의 진단과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 21

토론자 : 윤철경 지엘학교박청소년연구소 소장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29

발표자 : 박성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0년 49

- 사회적 책임과 전문적 책임의 필요성 -

토론자 : 강소영 사람사랑나눔학교 교장

■ 대안교육기관

교육의 오래된 미래, 대안교육 63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있고, 교육은 행복해야 한다.-

발표자 : 전정일 과천맑은샘학교 교장

서울지역 대안교육의 성과와 과제 91

- 서울지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토론자 : 송민기 서울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

종합토론

대안교육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배움을 조직해 나가다 99

김솔원 대안학교(신나는학교) 학생

대안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소고 105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주제발표

대안학교의 현재 진단 및 발전 방안

이수은 경남꿈키움중학교 교장



I. 들어가며

대안교육은 “현재의 공교육 체제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교육이념·내용·방법·평가·학교 운영 등에 대한 개별적 또는 전체적 비판의 관점에서 새롭고 다른 시도를 추구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이혜영 외, 2009: 22). 즉, 대안교육은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개념(김병길, 2001)에서 출발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대안학교 입학과 전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준비나 교사 대상 연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사안 발생 시 처리 방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려 곤란해지거나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기도 한다.

대안학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볼 때이다.

II. 대안학교의 역사 및 유형

1. 대안학교의 역사

1990년대부터 대안학교의 구체적인 실천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구조 개혁이라는 거대한 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990년대 초반,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 실천 운동들이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소모임 또는 캠프와 같은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대한 요구가 서서히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2년에는 광명의 창조학교, 1993년에는 대구의 민들레 학교가 아직은 전일제 대안학교로서의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 또한 유아 학교 단계의 대안교육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동이 1994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대안교육 수요의 저변을 넓혀가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안교육’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대안적 교육에 대한 시도가 ‘대안교육운동’으로 진화했다. 대안교육·대안학교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일반인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7월 서울 평화교육 센터가 주관한 「대안교육 모색을 위한 워크숍」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비록 산발적이지만 모범적인 교육 실천의 장으로서 소개

되었던 거창 고등학교, 흥성 풀무 농업 기술학교, 영광 성지 고등학교 등의 관계자들과 대안교육에 관심을 두던 다수의 인사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민간의 움직임과 더불어 교육 당국도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학교 교육의 경직성을 극복하려 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고교 유형의 다양화 모색, 다른 하나는 학교 운영 체제에 융통성을 부여해 학생들의 부적응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의지는 1996년 12월 10일 발표된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과 1997년 3월의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 확정 발표, 1998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및 제105조 등을 통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제도 도입 등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1998년 3월에는 영산 성지고, 한빛고, 경주 화랑고, 원경고, 간디학교, 양업고, 1999년에는 푸른꿈고, 동명고, 두레자연고, 세인고 4개교가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로 인가받았다.

이후 정부는 공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도 탈락자 문제 해결과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요구에 부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안교육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했다. 2003년 6월 정부는 의견 수렴 자료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수업 인정 및 대안학교(가칭) 설립 등을 통한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추진 배경과 대안교육의 현황 및 실태, 현행 대안교육의 문제점, 주요 선진국의 대안교육 정책 사례,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 계획,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재정 지원 대책 등 이었다. 2004년도에는 ‘교육 복지 종합 계획’에서 학교 부적응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대안학교의 확대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으며, 2005년 3월에 비록 각종학교의 형식이지만 대안학교라는 이름이 새롭게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 시행일은 1년이 지난 2006년 12월에 입법 예고되었고, 이듬해인 2007년 6월에 비로소 시행령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이혜영 외, 2009:41-44).

2. 대안학교 유형

학교 제도가 성립된 이래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오면서 대안교육 및 학교의 유형과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어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대안교육 및 학교에 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적 지위에 따른 네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정규교육의 틀 안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지향하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두 번째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세 번째는 일반 공교육의 학교로부터 대상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대안형 교육기관인 위탁형 대안학교, 네 번째는 학교 제도 밖의 교육기관으로 현실적

인 필요와 역할을 가진 대체적 교육수요를 담당하는 비(미)인가 대안학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혜영 외, 2008). 지금부터 진단할 경남꿈키움중학교는 기숙형 공립 각종학교이다.

Ⅲ.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분석

대안교육이라는 개념의 모호함과 미등록 대안교육 기관까지 포함하면 대안교육 및 학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립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숙형 공립 각종학교인 경남꿈키움중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위해 ‘교육 주체(학생, 교사)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추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지 조사와 실태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1. 경남꿈키움중학교 운영 실제 진단

가. 교육 주체(학생, 교사)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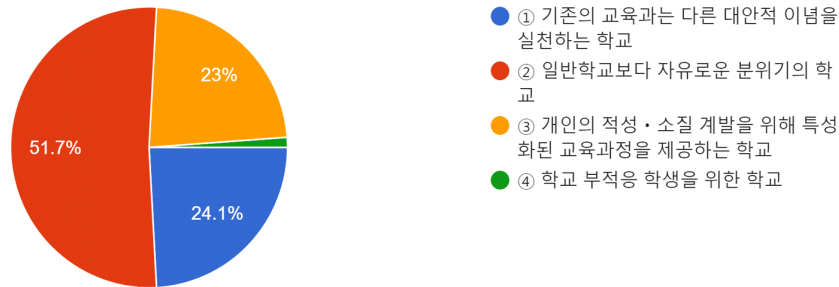
대안학교(공립 각종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학교의 교육이념이 반영된 별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에 대한 의식과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단순히 진학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독자적 이념과 교육과정, 독특한 문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의 편입을 의미하므로 당사자에게 심층적 이해가 요구된다. 여기에 사회(지역사회 포함)나 시기적 특징, 상위 기관 등의 요구와 이미 형성된 기존 교육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로 인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대안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정을 알아보기로자 한국교육개발원의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에 실린 대안교육에 관한 질문지 문항(이혜영 외, 2009)을 활용하여 대안학교 인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3일~7월 7일, 현재 경남꿈키움중학교 소속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학생은 103명 중 89명, 교사는 23명 중 18명이 응답한 결과이다.

1) 학생 설문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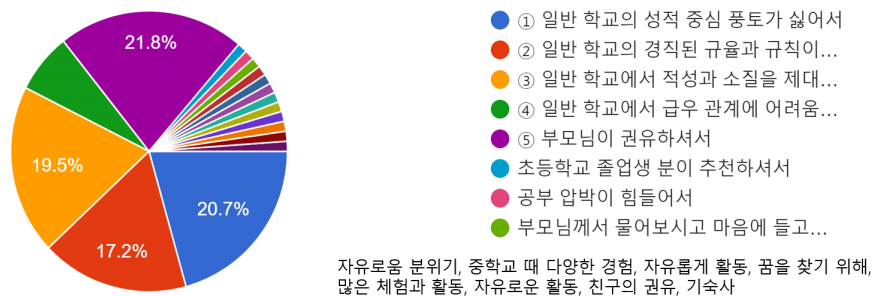
가) 대안학교 진학에 대한 인식

■ 대안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은 “일반 학교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학교”가 5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대안적 이념의 실천”(24.1%), “적성·소질 계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23%)로 일반적인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와 차이가 없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에 응답한 학생은 1.1%로 이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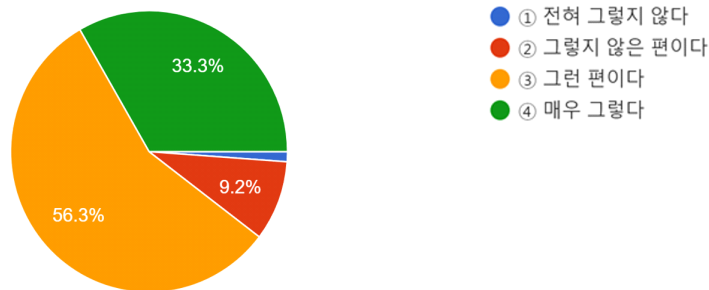
■ 대안학교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학 이유의 설문 결과에서는 “부모님의 권유”가 21.8%로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 본인의 순수의지보다 보호자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성적 중심 풍토에 대한 거부감”(20.7%), “일반 학교의 적성과 소질 계발에 대한 부적합”(19.5%), “경직된 규율과 규칙에 대한 거부감”(17.2%)로 앞선 인식에 대한 문항 결과와 연결된다.

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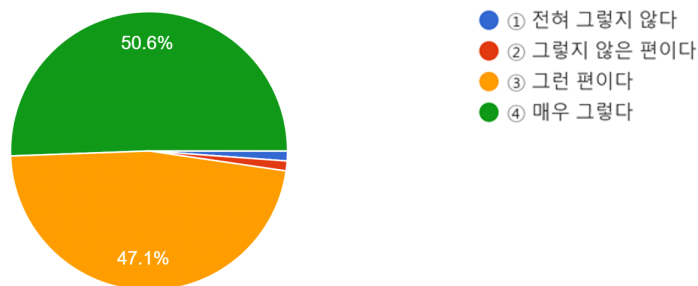
■ 나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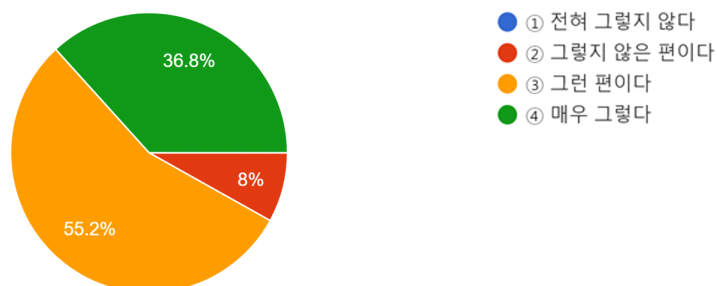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매우 즐겁거나 그런 편”이라고 89.6% 응답했다. 대부분 학생이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유로움과 성적 중심의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반면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10.4%)에 대한 응답은 기숙사 생활 및 일반 학교보다 많은 종류의 교육활동과 시간을 보았을 때 학생 개개인에게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매우 견디기 힘들 수 있어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

- 학교는 교과 공부 이외에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 학교는 학생들이 나름의 꿈을 갖고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다.



교육활동에 대한 인식에서 97.7% 높은 비율로 “문화·체육·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응답했다. 92%의 학생들이 “진로 교육 설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10년 동안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며 발전시킨 교육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부류의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얹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성장시키는 대안학교 고유의 역할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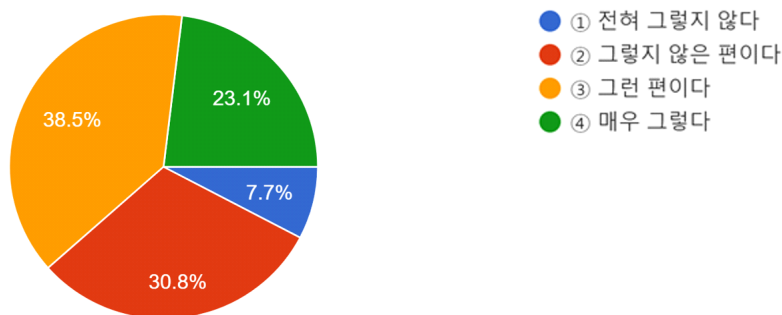
2) 교직원 설문 결과 분석에 따른 교직원 근무 여건 진단

대안학교는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소통의 이면에는 교사·학생·학부모 간 치열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교육과정에 자율성이 있는 만큼 교육과정 자체가 곧 어떤 학교인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와 철학, 새로운 접근 방식 등이 공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대안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대안학교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학교나 교육 과정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고, 사생활까지 내어주며 교육활동에 열정을 쏟는 교사도 반드시 전달하고픈 철학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교 근무 교원에 대해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이다.

가) 구성원 간 관계 및 운영

- 나는 학교의 이념과 목적을 두고 학교 구성원(다른 교사 및 학부모)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학교의 이념과 목적을 두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1.6%로 나왔다. 자율성과 민주적 분위기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갈등에 노출되고 있어 보인다. 나머지(38.5%)는 갈등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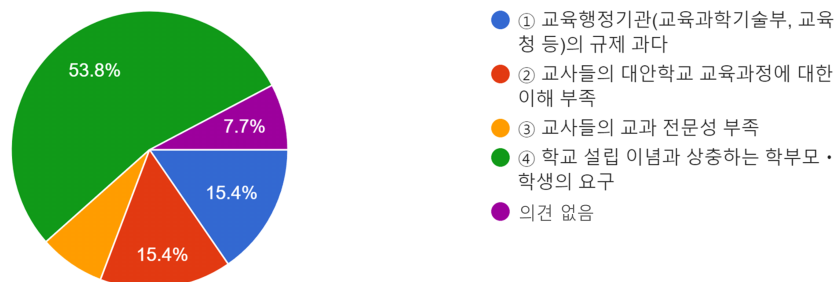
■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30.8%로 “학교 설립 이념과 학생·학부모 요구 사이의 의견 상충”으로 학부모나 학생과의 갈등으로 보이며,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에 의한 것으로 앞서 다룬 공동체 분위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재정 부족”(23.1%)으로 학생들이 기대하는 다양한 교육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안학교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미비로 볼 수 있다. “학교 운영 자율성 부족”(23.1%)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에 대한 참여, 교사 간 교육활동 운영 의견 갈등 그리고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 학교 전체 교육활동의 변화가 생기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운영

■ 대안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 설립 이념과 상충하는 학부모·학생의 요구”라고 53.8%의 교사가 응답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안학교에 대한 학부모들 개인의 시각에서 비롯된 요구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학부모 응대와 같은 일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이다.

다) 교육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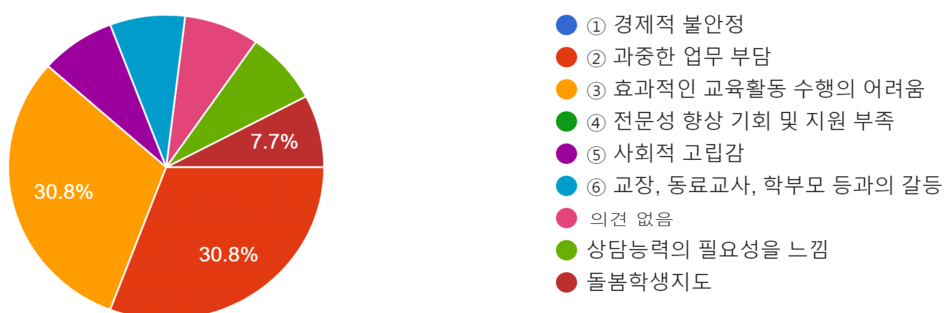
-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업 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낮은 것” 46.2%, “학생들의 능력 차이가 커서” 4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앞선 학생 설문에서 교육활동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과 상충 되는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수업 자료 및 시설이 부족함”(7.7%)이 차지하고 있어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라) 근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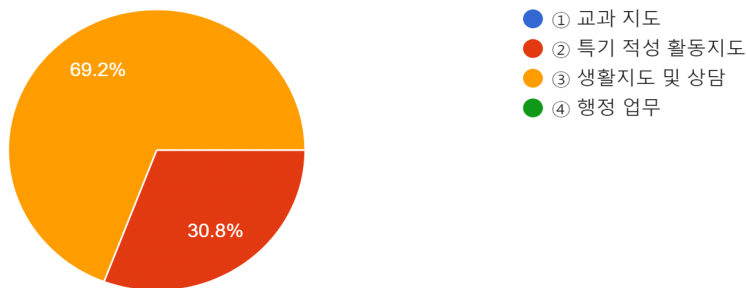
- 선생님께서 귀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근무에 대한 어려움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의 어려움”(30.8%)로 학부모나 교원 간 갈등에서 동반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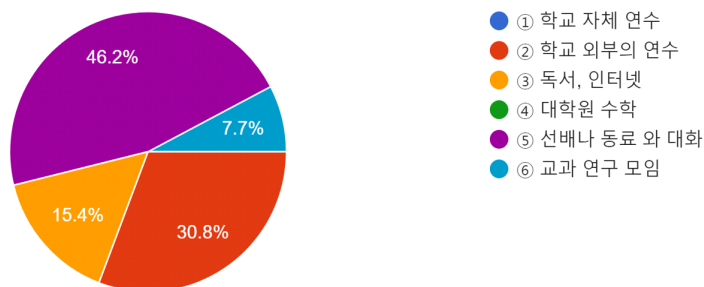
마) 전문성 신장

- 귀교에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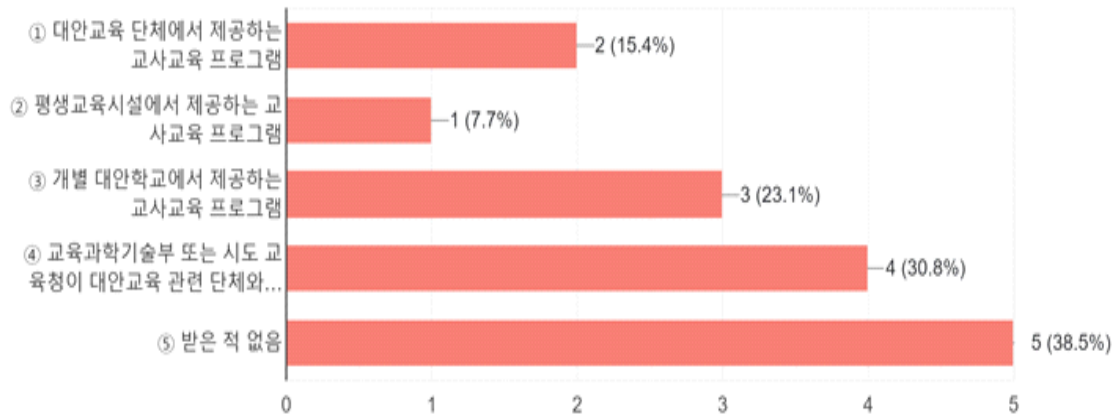
전문성 필요 분야에 대한 결과로는 “생활지도 및 상담”이 69.2%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선 통계분석에서 보이듯이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의 어려움”, “돌봄 학생의 지도”와 같은 학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돌보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지의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30.8%가 특기 적성 활동 지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의 기본교과 교육과 달리 대안화되어 개설된 대안 교과 교육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특성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 수업 및 생활지도 능력 등 전문성 신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성 신장에 대한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는 “선배나 동료와 대화”(4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학교 근무 경험을 전문성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립에서 피할 수 없는 전출에 대비하여 경험 있는 교사의 특례 선발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교원 정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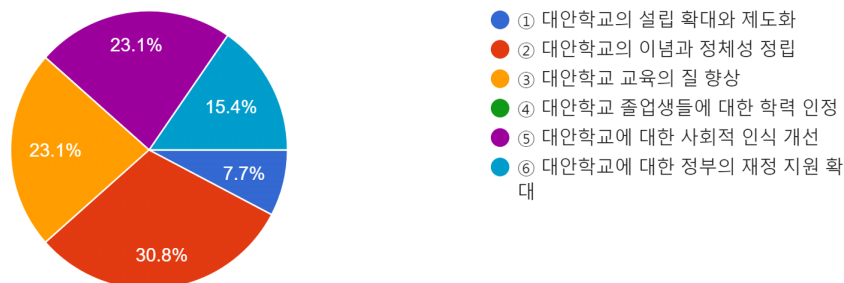
■ 선생님께서는 대안학교 교사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 대안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하십시오(여러 개일 경우 모두 표시)



대안학교 근무 이전 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 결과는 38.5%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공립의 인사 시스템 한계일 수 있기에 지속적인 대안교육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홍보와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교원 연수가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바) 발전 방향

■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학교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은 30.8%로 “이념과 정체성 정립”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국가 교육과정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으며, 공립인 만큼 그 학교의 이념과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외 정부의 재정지원과 설립 확대와 제도화가 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대안학교의 발전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따라서 타 문항과 다르게 응답률이 비슷하다.

3)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사항 분석

가) 재학생의 성향별 구성 비율 변화 추이

대안학교는 입시 위주, 서열식의 일반 교과 중심의 교육보다 진로 탐색 및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로 언급된다. 심지어 정신 신경계 질환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의사가가 경남꿈키움중학교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① 연도별 요보호학생 및 정신 신경계 질환학생 분석

요보호학생은 다양한 분류영역을 가진다. 그중 교육활동과 기숙사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 학생의 경우는 스스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교로 진학하지 않지만 정신 신경계 질환을 가진 학생들은 다르다. 해당 질환에 대한 발현이 매우 다양하고 눈에 띄는 물리적 형태나 현상이 아니기에 비전문가의 눈에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고 대응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힘을 요구하며 지도의 한계를 겪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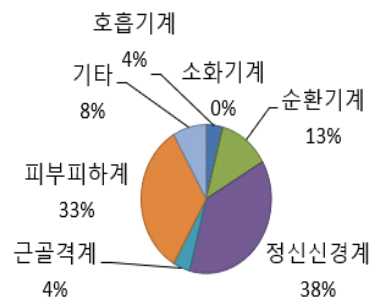
2019년(24/113명)

21.20%

요보호학생 21.20%에서 정신신경계 질환 38% 분포

질환별 분류	인원	백분율 (%)
호흡기계	1	4%
소화기계	0	0%
순환기계	3	13%
정신신경계	9	38%
근골격계	1	4%
피부피하계	8	33%
기타	2	8%
합계	24	100%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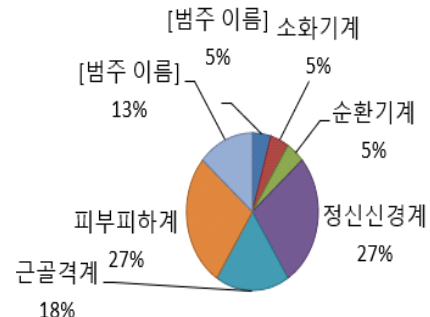
2020년(22/113명)

19.46%

요보호학생 19.46%에서 정신신경계 질환 27% 분포

응답	응답자 수 (명)	백분율 (%)
호흡기계	1	5%
소화기계	1	5%
순환기계	1	5%
정신신경계	6	27%
근골격계	4	18%
피부피하계	6	27%
기타	3	13%
합계	22	100%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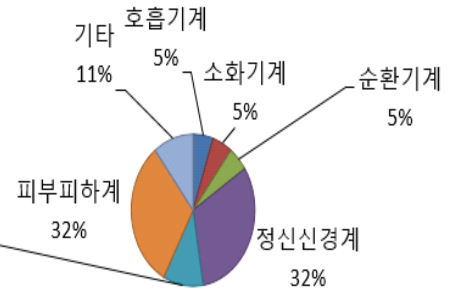
2021년(19/102명)

18.60%

요보호학생 18.60%에서 정신신경계 질환 32% 분포

응답	응답자 수 (명)	백분율 (%)
호흡기계	1	5%
소화기계	1	5%
순환기계	1	5%
정신신경계	6	32%
근골격계	2	11%
피부피하계	6	32%
기타	2	11%
합계	19	100%

2021년

전혀 그렇지
않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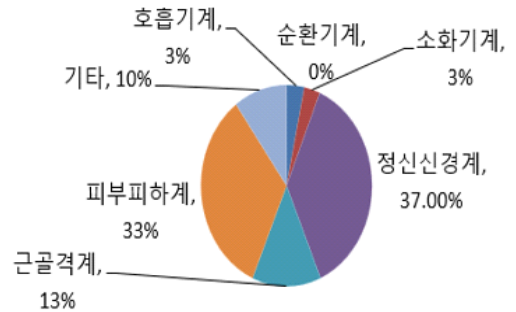
2022년(30/110명)

27.27%

요보호학생 27.27%에서 정신신경계 질환 37% 분포

응답	응답자 수 (명)	백분율 (%)
호흡기계	1	3%
소화기계	1	3%
순환기계	0	0%
정신신경계	11	37%
근골격계	4	13%
피부피하계	10	33%
기타	3	10%
합계	30	100%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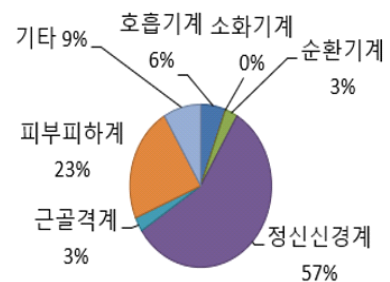
2023년(35/103명)

33.90%

요보호학생 33.90%에서 정신신경계 질환 57% 분포

응답	응답자 수 (명)	백분율 (%)
호흡기계	2	6%
소화기계	0	0%
순환기계	1	3%
정신신경계	20	57%
근골격계	1	3%
피부피하계	8	23%
불만	3	9%
합계	35	100%

2023년



2023년에도 2022년도에 비해 차지 비율은 37%에서 57%로 20% 늘었지만, 인원은 2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전체 학생 수에 따른 비율이 20%가 되었다.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비슷한 증상을 보여 의심 학생까지 더한다면 더 많은 인원으로 예상된다.

② 정신신경계 질환 학생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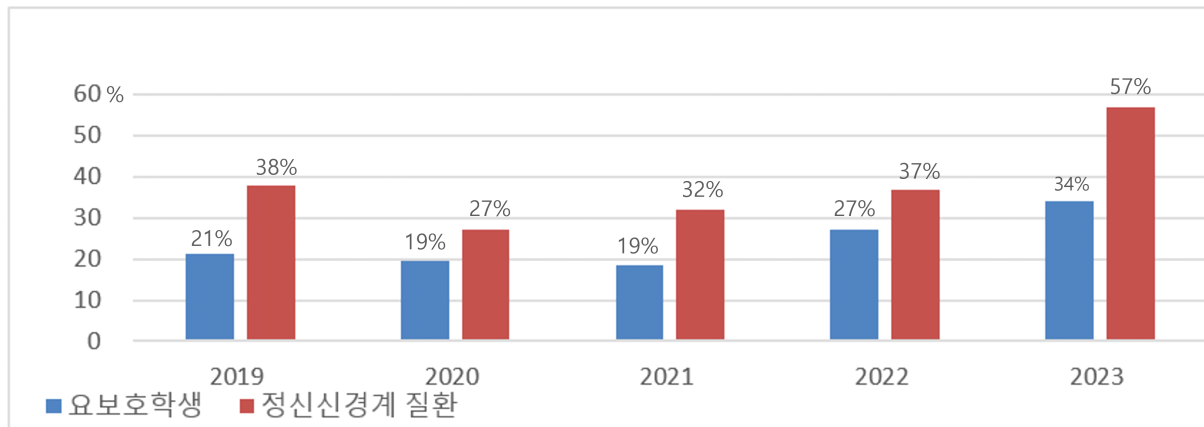
요보호학생 및 정신신경계 질환 학생 추이

학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요보호학생	21%	19%	19%	27%	34%
정신신경계 질환	38%	27%	32%	37%	57%

%

· 요보호학생: 전교생에 대한 비율
· 정신신경계 질환: 전체 요보호학생에 대한 비율

2019년~2023년 5년간 요보호학생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요보호학생의 비중이 21.2%에서 33.9%로 12.7% 증가하였으며, 요보호 학생의 질환별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신신경계 질환이 2022년 37%에서 2023년 57%로 20%나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 성향별 비율 변화에 따른 고찰

정신 질환은 매우 광범위하고 사고, 감정 및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며, 주로 약물과 상담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발현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학생이 주중 귀가하지 않는 기숙사 학교 상황에서 지속적인 초과 근무와 퇴근 이후에도 안심하지 못하거나 부모 응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상이다.

학생 정원이 일반 학교에 비해 적고, 적은 인원의 정신신경계 질환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활동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해 해당 학생 비율의 정도에 따라 교사들의 피로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담임과 학년 부장 교사의 경우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는다. 이를 고려해 학생 정원은 미달된 상황이지만 무조건 결원을 전·입학 받지 않고 교사들의 피로도 등 수용 상황을 고려해 결원의 일부만 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위 기관의 행정적 운영에서는 이러한 학교 현실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결원이 있음에도 학생을 더 전·입학 받지 못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일반 학교 기준 최저 인원으

로 운영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현재 교원 정원으로는 다양한 체험 위주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기숙사 학생을 돌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일부 교사는 본인 가정이 있음에도 학교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안학교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일반 학교 기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이 적용되는데다 공립학교 운영 특성상 전출이 불가피하여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화된 교사 양성과 유지를 어렵게 한다.

그 외에도 법령과 관련한 다양한 범주에서의 행정 사항이 ‘일반 학교에 준하여’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실행되다보니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령과 절차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변화 추이

본교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의 형태를 하고 있다. 기숙사 운영은 학교 운영상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모든 학생을 수용 가능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하여야 하며 급식 또한 조식과 석식 제공 등이 더해지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로 지원되는 기본예산이 있지만, 개교 10년 차에 접어들며 물가 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생 생활 측면에서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안전한 기숙사 생활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남녀 1명씩 생활 지도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한밤중 일어날 수 있는 상황(학생 위급상황, 학생 간 문제상황 등)에서 지도원 누구 한 명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학생들만 기숙사에 둘 수는 없다. 이를 담당 부서에 맡기기에는 큰 부담이기에 교원들이 번갈아가며 기숙사 숙직으로 이 부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교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생활 지도원 확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① 기숙사 생활규정 위반 추이

기숙사 생활규정은 매해 공동체의 협의 및 동의를 통해 마련되며 안전하고 원만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규칙 또한 그렇게 마련된 것이다. 아래 표는 동일한 기숙사 생활 지도원이 근무한 2021년 ~ 2023년(7월까지) 규칙 위반 누적으로 퇴사 된 학생들의 기록이다.

기숙사 별점 유형 및 항목별 퇴사기준

S유형 1: 폭력 2: 성추행 3: 도박 4: 절도 5: 음주, 흡연, 담배 및 라이터 소지

(최대 3개월 퇴사) 6: 타(남/여) 기숙사 출입

A유형 1: 사감 지도 불응 2: 타 호실 무단 취침 3: 출입금지 구역 및 출입구가 아닌 곳을 통한 무단출입

B유형 1: 22시 이후 타 호실 무단출입 2: 22시 이후 기숙사 무단이탈 3: 무단 외박 및

무단외출 4: 점호 불참(기상, 취침) 5: 기숙사 소란행위, 기숙사 시설물 고의 파손

C유형 1: 음란물 소지 및 탐독 2: 21:30 이후 타 호실 무단출입 3: 휴대 금지 물품 소지 4: 기숙사 내 침, 껌 등을 빨는 행위 5: 20시 이후 기숙사 무단출입 6: 외출 시간 위반 7: 타인 휴식 및 공부 방해 8: 이동신고 및 지정된 점호 전달사항 미이행 9: 청소 상태 불량 10: 지각 퇴실 11: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

D유형 1: 취침 시간 위반 및 교육 불참 2: 기숙사 내 음식물 무단 섭취 3: 22시 이후 세탁기, 건조기 무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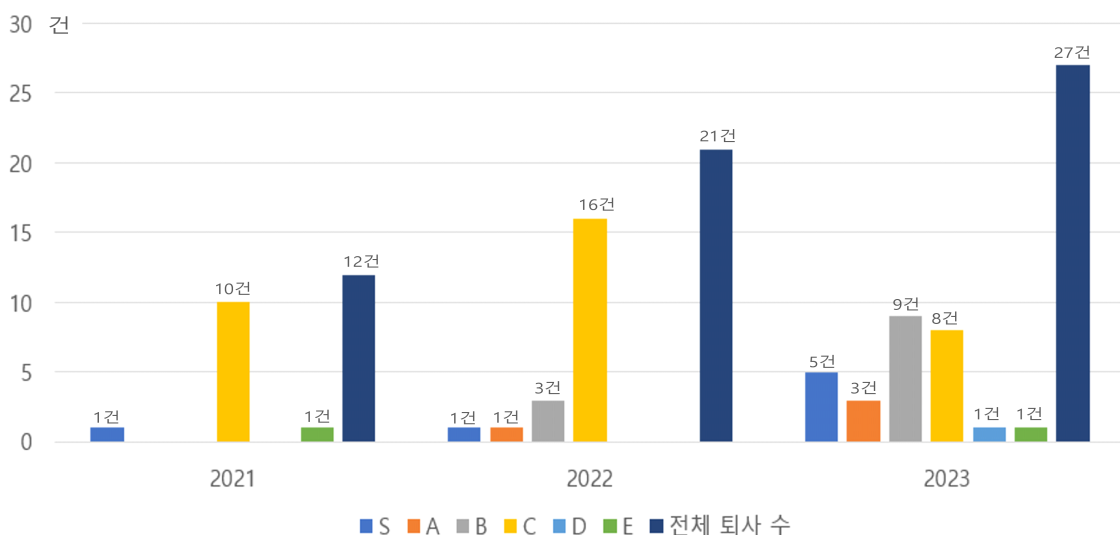
E유형 1: 간식 및 음식물 무단 반입 2: 개인위생 불량 3: 퇴실 시 정리 정돈 불량 4: 22시 이후 소동 위반 5: 유무선 인터넷 불법 사용 6: 기타 규정 및 공지한 지시 위반

퇴사 학생 항목별 위반 기록 내역

유형	S						A			B					C											D			E						총							
항목	1	2	3	4	5	6	인원	1	2	3	인원	1	2	3	4	5	인원	1	2	3	4	5	6	7	8	9	10	11	인원	1	2	3	인원	1	2	3	4	5	6	인원	계	
2021					1	1					0						0	2	2						17	12	1	1	15	10				0			7				1	12
2022					1	1	1	1	1	1					9		3		11						12	11	12	7	27	16			0							0	21	
2023	4					1	5	6			3	3			16	8	9	1	1	3					5	24		6		8		6		1			1	1	5		1	27

보통 기숙사 생활 규칙 위반에 대한 기록은 생활 지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 참작을 하고 만회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거듭된 지도에도 교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반 기록이 된다. 위 내역을 보면 2021년 12명에서 2022년 21명으로 75%가 늘었고 2023년에는 한 학기 만에 전년도 인원을 넘어서서 157% 증가되었다.

② 기숙사 생활규정 위반 누적 추이에 따른 고찰



위 기록들은 교사와 기숙사 생활 지도원이 학생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학생 지도 곤란도에 대한 지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매해 퇴사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나 2023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 내역은 퇴사 된 학생에 대한 기록이기에 퇴사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기숙사 생활 규정 위반 학생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생활 지도원과 교사들의 고충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인력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 재정지원 사항

공립 대안학교의 재정지원은 정부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이 되며 이는 일반 정규학교와 차이가 없다. 여기에 각 시도의 정책이나 교육청 운영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지원되며 이 부분이 일반 학교와 구분된 재정지원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도별로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이 다르고, 대안학교 자체가 일반 학교처럼 정례화되어있지 않아 지역별로 재정지원도 다른 상황이다.

다양한 성향의 학생과 현재 대안학교의 외부 인식에 따른 특별한 성향의 학생들이 높은 비율로 재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생활지도 및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일반 학교를 넘어서는 수고가 필요한 가운데 일부 인건비를 법률적인 문제로 학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대안학교의 학교 운영은 분명 일반 학교와 다른 차원의 수고로움과 열정 그리고 희생을 반드시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 운영의 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인 재정지원은 일반 학교보다 반드시 더 필요하다.

Ⅳ. 대안학교 운영 개선 및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

교사들의 대안학교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대안학교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대안학교의 이념과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는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교육의 대상자가 일반 학교 부적응자 또는 학교 중도 탈락자,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정신 신경계 질환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의 교육공동체라는 인식은 교사들의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허탈과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제도적으로 명확한 입학 대상의 지침(특수 및 경계성 장애 학생 입학 자격 등)을 정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운영되고 있듯이 대안학교 또한 교사 양성기관을 일반 학교와 다른 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덧붙여 대안학교 교사들의 경우 대안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

안학교 교사가 되기 전이나 된 후에 대안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서 38.5%가 “받은 적 없음”에 응답하였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생활지도 및 상담”에 69.2%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수업 및 생활지도 능력 등 전문성 신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46.2%가 “선배나 동료와의 대화”라고 답했다. 이는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을 받는 곳이 선배나 동료임을 보여준다. 일반 학교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안들이 발생할 때 제도권 안에서의 명확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 신경계 질환 학생 증가는 교사들에게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과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유형별 정신 건강 전문가 및 전문 상담사 상주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대안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 입니까?”라는 질문에 “과중한 업무 부담 및 효과적인 교육활동 수행의 어려움”에 61.6% 라는 높은 응답률이 나왔다. 이는 일명 ‘야간 잠 사감’의 업무 때문이다. 하루 종일 일반 학교와 다른 업무(학생의 학교 무단 이탈 및 분노조절장애 학생의 폭력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 자살, 자해의 위험성을 가진 학생들)를 보다가 생활 지도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야간 학생 사안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기숙사에서 밤새 학생들을 돌본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하루 잠 사감을 하고 나면 최소 일주일의 피로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고 소리높여 하소연한다. 대안학교 기숙사에 생활 지도원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상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고 있지만 ‘현재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V. 남겨진 과제

첫째,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있는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받는 각종 교원 연수 (신임교사 연수, 1정 연수, 교감·교장 자격연수 등)에서 ‘대안교육의 이해’ 등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포함된다면 대안교육과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대안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차이를 차별하지 말고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서로 배우는 관계를 통해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듯이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이 과감하게 바뀌어 운영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중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셋째, 대안교육은 국가라는 공적 기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공교육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

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을 직접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이다. 기존 영역을 확장하여 ‘치유와 돌봄’을 위한 더 많은 대안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넷째, 대안교육 현장에서 헌신할 교사를 키우고, 이들을 성장시키는 연수, 대안학교의 행정적 체계 구축과 운영 등을 담당할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대안학교의 질적인 성장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 철학을 갖춘 ‘준비된 교사’를 얼마나 많이 길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여태전, 2023: pp. 24-25).

VI. 나가며

지금까지 대안학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대안교육이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와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과 대안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도 필요하다.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안학교를 찾은 학생들에게 편협된 교육과정을 제시한다면 이들은 또 다른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많은 종류의 대안학교에서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 한 명도 낙오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안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절실하며 사감의 인원 확충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치유자의 상주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관리자 또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학교는 지금 대안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일반 학교와의 큰 간극으로 인한 혼란 등으로 1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금의 대안학교 교육과정이 일반 학교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참고문헌

- 김병길(2001).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의 범주화”, 『교육철학』, 19, pp. 1-17.
- 여태전(2023). “한국 대안교육 운동의 성찰과 과제”, 『협력과 연대의 대안교육, 사랑과 희망의 교육』, pp. 24-25.
- 이혜영 외(2008). 미래 학교 모형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외(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토론

대안학교의 진단과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

윤철경 지엘학교박청소년연구소 소장



I. 이수은 교장선생님의 발표내용 요약

□ 경상남도 교육청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정책

- 경남 꿈키움 중학교는 공립 기숙형 대안학교로 각종 학교임
- 각종학교 51개(공립 22개교, 사립 28개교) 중 경상남도는 6개 공립 각종 대안학교를 운영 중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의 공립 대안 각종 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경상남도 공립 각종학교

중	경상남도꿈키움중학교
고	남해보물섬고등학교
	김해금곡고등학교
다양성 교육특화	경상남도고성음악고등학교
	거창연극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 경남 대안학교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안학교의 철학,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대안학교와 일반 학교 대상 대안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양성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논의, 연구하고 있으며 2025년 안착을 목적으로 하는 등 대안교육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꿈키움 중학교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자료를 통해 본 특징

-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자유로운 학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부모들의 권유에 의해 진학, 학교생활에 대체로 만족
- 교사들의 애로사항은 학교설립 목적에 대한 상충으로 겪는 학부모와의 갈등, 대안학교 교육과정 구성의 어려움, 학생의 낮은 학습의욕과 능력 차이 임
-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원하는 영역은 생활지도와 상담, 특기적성활동 지도이며 이것을 선배/동료와의 대화, 외부 연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음. 대안학교교사가 되기 전에 이에 대한 연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발전방향으로는 학년별 구분 없는 학습체제, 대안교육의 이념 및 정체성 정립, 일반학교 표준교육비 기준보다 높은 교육비 증액 필요 등을 제시함.
- 대안학교 진학 학생의 특성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점은 정신질환 학생의 증가(2019년 38명→

- 2023년 57명). 기숙사 퇴사 학생의 증가(2021년 12명→ 2023년 27명)
- 2022년 기숙사 생활지도원 인건비 연간 81,000천원(3교대 기준? 27,000천원)은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

□ 정책제안과 향후 과제

○ 정책 제안

- 대안학교의 정체성 확립 필요 : 부적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공동체인가?
- 대안학교별 다양한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
- 별도의 대안학교 교사 양성 체계 필요
- 정신건강전문가, 상담사, 기숙사 생활지도원이라는 대안학교 실정에 맞는 인력 필요

○ 향후 과제

- 각종 교원 연수에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 필수 과목화
- 대안교육을 교육의 공교육의 영역으로 포함해야.
- 대안학교 거버넌스 체제: 대안교육지원센터 필요
- 대안교육에 헌신할 교사 양성 필요

II. 발표에 대한 의견

□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교사인데...

- 대안교육에 대한 연수 경험이 없는 교사가 대안학교 교사가 되는 구조를 개혁해야
-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것인데 교사가 대안교육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새로 짜야 하고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데 대안교육을 배우며 실습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 교사에 대한 대안교육연수는 필수이며 이러한 준비를 한 교사들 대상으로 대안학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학교장은 공모형태로 대안교육 유경력자를 초빙해야
- 교사양성과정에 대안교사 양성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에 필요한 실습과정 또한 개발되어야 함. 학교 모범생으로 성장한 교사들이 방황하는 청소년의 마음을 읽고 대응하기 어려움.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감적 능력과 대응하는 법 등에 대해 익히도록 하며 대안학교나 위기청소년

시설 실습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미 이러한 경험에 익숙해 있는 대안학교 교사, 청소년시설 지도자들이 대안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와 교류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

- 대안학교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생활지도와 상담, 특기적성활동 지도를 어려워함. 대안교사 연수과정에 이 부분을 강화하여 연수하도록 하며 대안교육에 효과가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특기적성과목을 전문 강사, 혹은 1인 1기를 갖춘 교사들을 양성, 배출

□ 대안학교에 맞는 인력구조 갖춰야

- 대안학교에는 일반학교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인력이 있음. 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가, 기숙사 담당 교사 인력이 더 필요함
- 이들 인력에 대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교실에서부터 기숙사까지 교육의 장이므로 소통이 활성화 되어야 함

□ 학교 대안교육의 정체성

- 학생의 필요에 맞게 교사들을 형성하는 것
- 대안교육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학생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임
- 학부모와 학생은 대안교육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에 해당 학교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학교장과 교사들이 세워나가야 함.

□ 공립학교에서 대안교육의 필요

- 현재의 대안학교는 입시경쟁을 위주로 하는 학교교육의 황폐화에 대응해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민간의 시도에서 출발했다. 방과 후, 주말,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졌고 1997년 전일제 대안학교로서 ‘간디청소년학교’가 세워졌음. 대안교육은 입시경쟁에 찌들어 있는 일반학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된 것이었다. 2000년 대 이후 민간주도로 많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 이러한 대안교육계 움직임을 공교육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 1차 일반학교와 같은 학교규모를 갖는 학교들을 대안교육 특성화 중, 고로 편입한 것
 - 2차로는 학교기준을 대폭 완화한 ‘각종학교제’ 도입

- 3차 대안교육기관법을 통한 대안교육 등록
- 공교육현장이 급속히 어려워졌지만 공교육 제도 내에 수렴된 대안학교의 필요는 다음과 같이 수렴됨.
 -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조치, 보통교과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특성화교과를 학교장 재량으로 개설 가능, (평가) 정규학교로서 한계가 있지만 입시경쟁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표방하며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실천
 - 일반학교에서 지도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제공의 필요, 초중등교육법 60조 3에 근거한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평가) 공립 대안학교는 위탁교육기관 성격, 사립 대안학교는 기능교육에 치중¹⁾
- 대안학교를 ① 교육가치 지향형 대안학교, ② 특화된 기능에 중점을 두는 학교, ③ 교육복지형 학교로 성격을 나누어 본다면 현재 공교육 현장의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는 ②, ③으로 초점이 두어져 있음.
- 발표자는 최종적으로 **대안학교 교육과정이 일반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음. 이 결론은 매우 시의 적절함.

Ⅲ. 학교의 위기와 대안교육

□ 학교의 위기

○ 통제되지 않는 교실 문제

- 학교의 위기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됨(윤철경,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1999,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 환경 및 학생문화의 변화 등으로 통제되지 않은 교실의 문제, 학교폭력 등 발생.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누적되어 옴.

○ Covid-19로 인한 교육변화

- Covid-19는 사람과 사람과의 면대면 만남을 최대한 제한하는 사회적 경험의 보편화, 코로나가 상수가 될 수 있는 미래사회 관점에서 볼 때 너무 거대한 학교
- 교육부-교육청-학교로 연결된 거대한 위계 조직은 현장 교사 집단의 무기력과 무의욕, 관료적 행정체계를 통한 혁신과 개혁의 상수화,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높은 피로에도 불구하고 성과 축

1) 이종태(2018).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발전방향,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자료집, pp.8-10.

적용 전시물로 이어지면서 실제 필요한 교육변화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음.

- Covid-19는 오히려 교육현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침. 학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우선 '너무 큰 학교는 위험하다', '지적 학습만을 위해서라면 교사와 학생이 반드시 면대면 으로 만나야 할까?'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의 기능이 돌봄이 아니라고 하는데 Covid-19 국면에서 일해야 하는 부모들은 학교의 돌봄 기능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진 아닌가? 학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 자녀들을 안전하게 저비용으로 긴 시간을 맡길 수 있던 기능이 학교의 주요 기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학교의 돌봄 개념은 '학습지원+교사들에 대한 안전한 위탁' 개념).
- 그러나 '공문과 잡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돌봄'은 학교의 기능이 아니라는 학교현장의 요구
- 학교가 학생들을 저비용으로 장시간 맡아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교육 재정을 통해 계층적 차별 없이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에게 학교는 탁월한 돌봄 기관으로 인식됨.
- 그러나 이 학교에서 평가와 선발구조에서 하위 그룹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능력경쟁에서 뒤쳐진 학생들은 '사회적 무능력자'로 각인되면서 '무기력자'가 양산되고 있음.
- 돌봄 기능을 강하게 요청받는 초등학교
 - 초등학교 교사에 집중된 부모 개입, 학생 간 다툼의 사안이 소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 과잉개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안전한 돌봄 욕구의 문제이며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는 부모와 교사간의 인식의 괴리가 생김.
 - 학교는 교사와 학생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의 현장. 몸부림치는 학생들로 인한 교실 붕괴, 그 가운데 숨죽이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학생들에 대한 방치
 - 이러한 교육문제는 사회적 폭력과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학교에서 돌봄의 의미: 돌봄의 교육

- 돌봄이 방과 후 급식과 보살핌을 의미하지 않음
- 집단주의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현재의 학생 상황에서 개인에 초점을 둔 교육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함을 의미
- 학생 개인의 특성과 선호, 어려움을 배려한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학점제, 개인별 시간표와 교실 이동, 기본 교과목 외 선택 교과목의 실제적 다양화, 교사-학생이 만들어 내는 교과, 기계적인 학년제 폐지, 능력에 따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표 등
- 표준 교과목으로 모두를 동시에 가르치는 학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교육적 소외를 제거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게 하는 것, 돌봄 교육은 개인 존중에 기초함.

- 학교는 학생들에게 즐거워야 하고 참여의 기쁨을 누려야 하고 두려움과 긴장이 제거되어야 하며 관계의 친밀함이 있어야 함. 존중 받을 때 유순해 지며 배제될 때 사나와 짐. 교실은 이러한 돌봄이 있어야 평화로워짐. 빨리 성취해야 하는 긴장감 도는 교실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없음.
- 돌봄 교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실을 돌봄의 교실로 만들어야 함.
- 교사들에게 적은 학생 수와 적은 행정 업무가 필요함. 교사들이 교육청과 학교장은 책임 소재를 묻는 게 아니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적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매진해야
- 냉랭한 교무실이 따뜻한 교무실이 되고 관계가 살아 있는 따뜻한 교실이 됨.

□ 대안교육 확장이 학교교육을 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가?

- 학교현장의 붕괴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대안교육은 활발히 성장했다. 90년대 중반 소장 학자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에서 풀무농고, 영산성지고, 거창고를 대안교육의 씨앗으로 보며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형 대안학교에서 간디청소년학교와 같은 전일제형 대안학교가 시도되었다.
- 민간에 의해 힘겹게 축적된 대안교육 경험을 공교육이 일부 흡수했으나 전체 교육계에서 볼 때는 미미한 수준
-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정책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열기가 식었다. 교육위기는 깊어졌고 교사들의 무기력 또한 깊어졌다.
- 현재 대안학교는 공교육의 보완재로 머물고 있음. 즉 대안학교, 공교육에서 다루기 힘든 학생들, 학교가 충족시켜줄 수 없는 교육과정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학교의 위기는 전국 어느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대안교육의 목적임
- 학교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주어서 학생과 학교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실제 대학진학준비를 하려는 학생이 소수인 일반고에서는 입시할 학생만 소수 학급을 꾸리고 나머지 학급은 느슨한 교육과정으로 시수만 채우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음.
- 일반학교에서도 핵심 교과 외 자율적 교과 편성이 필요로 함. 모든 교사가 입시경쟁 교육의 대안을 찾아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골몰해야 환경임.
- 교육부가 추진해왔던 대안교실은 학교에서 말을 교사가 없어 Wee Class에 맡겨 운영하는 게 추세임. 학교 교사들이 학생에 맞는 교육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자신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권을 허용해주는 일이 필요하며
- 교사와 학생의 분리가 필요한 대안교실이 프로그램 운영 시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주제발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박성민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I. 서론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원적교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교과와 위탁교육기관의 목적에 맞는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학생자치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탁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위탁교육을 받는데, 원적교로 복귀를 염두에 두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적교로의 적응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주로 전문대학(직업과정), 청소년시설(수련관, 문화의집 등), 대안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종교단체, 비영리 사회복지 단체 등 다양하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위탁학생 수가 급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하기 위해 대안교육적 요소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기관이어서, 공교육과 제도권 밖 대안교육 사이에서 그 정체성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어 일반학교의 부담도 덜어준다. 그러나 자칫 위탁교육이 격리 교육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원적교로 복귀를 전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원적교의 교육환경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필요성과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을 적기에 발견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위탁교육을 받게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필요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업에 대한 흥미 부족, 친구 관계

문제, 가정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하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Wee프로젝트,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원이 중심이지만, 점차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주로 위탁된 학생들은 부적응 학생이 많다. 그렇다 보니 무기력하거나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님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위치

공교육 내 대안교육		학교 밖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 대안교육기관
공립형 대안학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홈스쿨링
각종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공교육 내 대안교육과 학교 밖 대안교육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입시교육과 경쟁교육에 탈피하여 학교 밖에서 대안교육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학교 밖 대안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공교육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도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공교육과 학교 밖 대안교육이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경쟁 관계로 보이게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뉘게 되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제도권 안과 밖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유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분류

연번	학교생활 어려움 겪는 사유	분류	위탁교육기관
1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	학습	학생 맞춤 교육 기관

연번	학교생활 어려움 겪는 사유	분류	위탁교육기관
2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학생	관계	사회성 교육 기관
3	공격적·폭력적인 학생	품행장애	품행 교정 기관
4	일반학교에 교육과정이 자신에게 맞지 않은 학생	진로탐색	진로를 탐색하는 기관
		진로선택	특정 진로 특화 기관
5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학생	돌봄	가정형 돌봄 기관
6	한국어(문화)가 서툰 학생	다문화	한국어/문화 교육 기관
7	심리·정서적인 문제 (마음상처, 우울증, 트라우마, 자해, 자살 등)	치유	상담 중심 기관
		치료	치료 중심 기관
8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해학생 교육 기관
		피해학생	피해학생 보호 기관
9	청소년 한 부모	미혼모	청소년 한 부모 보호 기관
1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중독치료	중독치료 기관
11	법원 보호관찰 대상 학생	보호관찰	법원 청소년 기관

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유형 분류

- 1) 무기력한 학생
- 2) 자살, 자해 학생
- 3)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 4)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
- 5)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생
- 6) 산만하거나 주의력이 낮은 학생
- 7) 공격적·폭력적인 학생 - 반항 및 품행 문제
- 8)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여 힘들어하는 학생

마. 학교 급별 나타나는 부적응 사유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분류

학교 급에 따라 나타나는 부적응 사유도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 급에 따라 나타나는 부적응 사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된 학생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기관의 예는 초등가정형Wee센터이다. 그리고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 위탁 교육과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과정이 학교 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아직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중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맞는 위탁교육기관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관리

가.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관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각 분야별 표준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은 알고 있어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므로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처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각 분야별 교육과정 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시 안을 담은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리가 더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원 및 강사 관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자율연수 및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교직원이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 어려움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위탁교육기관의 교원은 자기 효능감을 느낄 것이고, 위탁교육기관 교육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다. 학생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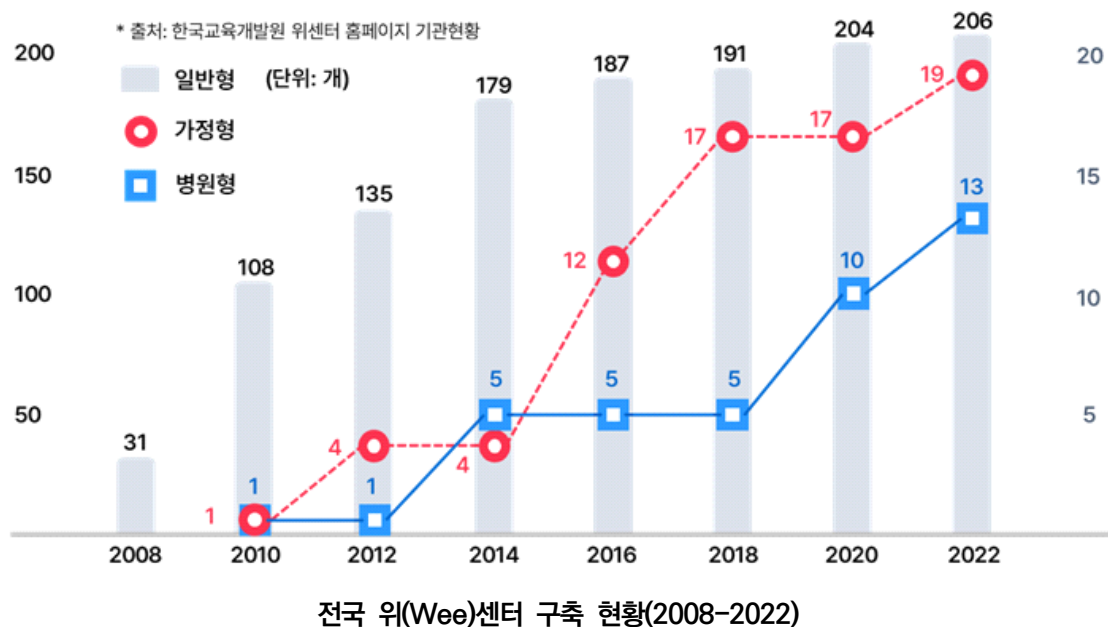
위탁교육기관의 학생 사전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학생이 이 기관에 적합한지 살필 수 있고, 학생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판단될 경우 다른 기관을 소개하여 그 학생에게 맞는 위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된 이후 학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원적교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및 위탁기간에 대해서도 원적교 및 학부모님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판단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교육기관 담당자(담임교사, 상담사 등), 원적교 담당자(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학부모님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라. 시설 및 안전 관리

위탁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다르다. 해당 기관이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와 관련된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기관이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교육은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잘했어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3. 대안교육과 밀접한 Wee 프로젝트

위(Wee)프로젝트는 2008년 시작된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학교폭력·학업 중단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요인들로부터 우리 모두(We)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Education)을 통해 건강한 마음(Emotion)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들의 상담, 치유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업 부적응 등 위기 학생에 대해 관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였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발표 이후 전국적으로 가정형, 병원형 위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위(Wee)프로젝트 관련 사업

사업명	운영주체	형태	규모	주요내용
Wee클래스	학교	자체	247교	- 학생 전문상담 - 미구축학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지원(초 65교, 고 5교)
랜선 Wee클래스	교육청	위탁	1개소	-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Wee닥터	교육청	위탁	1개소	- 전문상담사 대상 상담방법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자문
Wee센터	교육 지원청	자체	3개소 (동부, 서부, 광산)	(동부) 위(Wee)로하는 가족교육, 내 맘(Mom)을 부탁해, 위클래스 담당자 슈퍼비전(사례자문) (서부, 광산) Wee로 안녕(학급단위 집단상담), Wee로 사랑(자살예방 및 심리안정 교육), Wee로 꿈키움(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Wee로 만남(학부모교육 및 집단상담)
초등가정형 Wee센터	교육 지원청	위탁	1개소	- 캠프 햇살마당(초등 돌봄, 상담, 교육 통합지원)
Wee스쿨	교육청	위탁	2개소	- 용연학교(중학교 과정), 돈보스코학교(고등학교 과정) - 위기요인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상담 및 Wee프로젝트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 내에서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담 및 Wee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정신적인 부분(분노, 우울, 무기력감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대안교육과 진단, 상담, 치료는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4. 해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

영국과 미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례는 학업이 중단된 이후 조치보다, 위기 징후를 조기 파악하고 개입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위탁교육기관과 원적교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교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부진에 대응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습지원 서비스는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교에서 수업의 진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 영국 Pupil Referral Unit(PRU)

- 정서지원: 교사 이외에 정신보건사, 치료 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닝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들의 협업 강조
- 사회성교육: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나. 미국 Second chance school, Charter school

- 학습지원: 수업마다 세션을 나누어서 한 세션에서는 개인별 학습 속도와 학습 수준에 맞도록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세션에서는 팀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정서지원: 개별상담, 학부모교육 등
- 사회성교육: 스포츠 활동,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검토할 문제 및 개선점

가. 검토할 문제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

순위	항 목
1	학생의 위기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관 부족
2	적절한 외부기관 관련 정보 부족
3	외부기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
4	학교로 복귀 후 학교적응 프로그램 지원이 충분치 못함
5	학생과 학부모가 외부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싫어함
6	위탁교육기관 담당자와 소통 부족으로 교육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움
7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음
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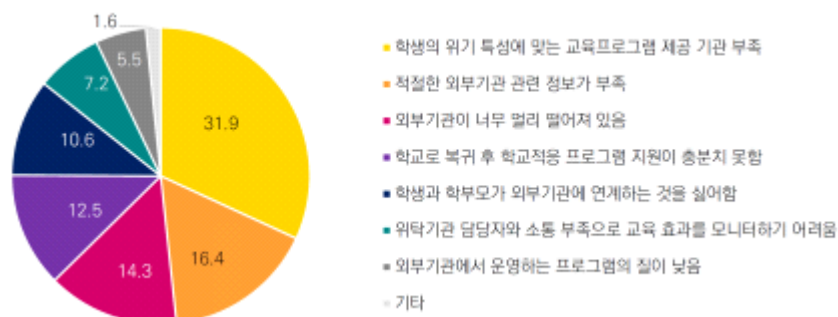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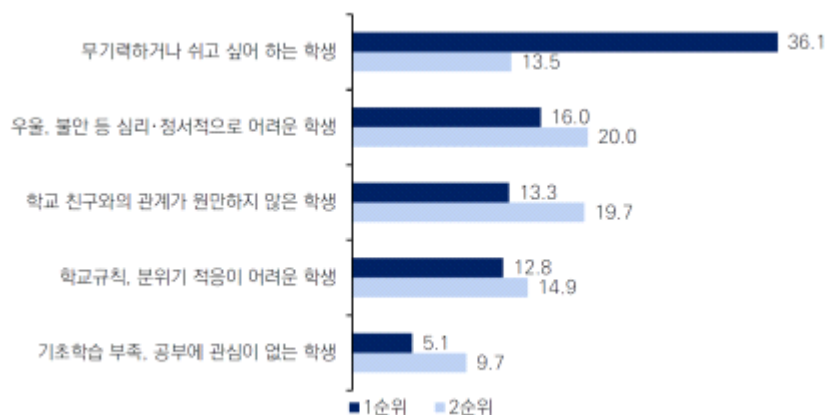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 94쪽~95쪽

2)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유형별 차지하는 비율

순위	항 목
1	무기력하거나 쉬고 싶어 하는 학생
2	우울, 불안 등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 학생
3	학교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학생
4	학교 규칙, 분위기 적응이 어려운 학생
5	기초학습 부족,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
6	진로 불일치 학생
7	가족 갈등이 심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
8	내신이 나오지 않아 검정고시를 보려는 학생
9	교사와의 갈등이 빈번한 학생
10	대안학교, 홈스쿨링을 선호하는 학생
11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업중단을 원하는 학생
12	기 타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 96쪽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운영 시 어려운 점

순위	항 목
1	담당자 업무 과중으로 위원회 운영 부담
2	피상적 협의와 형식적 절차로 진행
3	위원회 일정 조율의 어려움
4	학업중단예방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 부족
5	실질적 위상 부족으로 협의 내용이 잘 추진이 안됨

4)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시 어려운 점

순위	항 목
1	업무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아 사업 운영 집중이 힘들
2	위기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3	학생과 부모의 동의와 참여를 구하기 어려움
4	외부 강사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의 어려움
5	관리자 및 타부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6	위기 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와 도구 부족
7	예산이 적정하지 않거나 예산 사용 과정에 어려움 존재
8	대안프로그램 참여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평가의 어려움

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개선할 점

1) 학업중단 예방 연수강화 및 정보 제공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중단예방 계획 수립, 학업중단예방 예산 편성,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강화, 교직원 연수 실시, 학업중단 예방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조직 강화(상담·대안교육팀 신설 등), 단위학교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실시, 단위학교 학업중단 예방 교직원 연수 자료(리플릿 등), 학부모 가정통신문 제작 및 보급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생활교육, 인성·학부모교육, 대안교육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한 과 내에서 생활교육, 인성교육, 학부모교육, 대안교육을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대안교육팀에서 자살, 자해, 상담, 치료연계 관련 업무 등을 대안교육과 함께 다루게 하면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유형별 지원이 한 팀 안에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인성교육과		
생활교육팀	인성·학부모교육팀	대안교육팀
생활교육업무	인성교육업무 학부모 자녀교육 업무	대안교육업무 학업중단예방업무 생명존중업무 Wee관련 업무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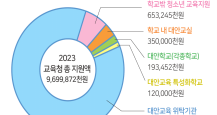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위탁교육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 관련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광고를 하기도 하였고, 대안교육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단위학교에 보급하고 각종 연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유형별 현황



학교 내 (공공·사립·유·초·중·고)	학교 밖 (민·공교육 외·민·공교육 외)	학교 밖 (민·공교육 외·민·공교육 외)
광주서부초등학교(가정교육)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센터(가정 교육 센터)	대안교육 센터(가정교육) (학력 미인정)
공교육 내 대안교육 유형 분류	대안교육 유형	학교 밖 대안교육 유형 분류
• 학교 내 대안교육 • 대안학교 + 자립학교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민간자립형 • 교육청 지정형	• 재민(재가)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과 대안교육 지원 센터는 동쪽초·대동초에서 운영) • 가족자립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
• 학교 내 대안교육: 70교 (가정교육 1교, 자립학교 69교) (특성화학교 1교) (공교육 특성화: 남부초·남부초 고1교, 동명고)	• 민간재가 대안교육기관 (13개) 중 12개(가정 (19명))	• 동북 대안교육지원센터 (1교, 동북초)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지원 예산



구분	예산액 (천원)
학교 밖 대안교육	653,249
학교 내 대안교육	350,000
대안학교(자립학교)	193,420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120,000
대안교육 위탁기관	8,383,175
2023 교육청 총 지원액	9,699,872

※ 단위학교 100% (예산 6,247,243) 학교 지정형 교육 및 운영

202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2023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이렇게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이란 일반의 특성과 학교에 맞지 않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대안교육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 공교육 내성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 대안교육을 통한 학습자 중심 교육
- 다시 전환! 학습중단순위에 준정도로 공교육에서 풀기
- 학교 +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및 관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한 명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다양성을 품은 대안교육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illegible]

2)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

대안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적기에 위탁교육이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3) 분야별 적절한 규모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교육청 정책연구소를 통해 분야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수요 예측이 필요하며,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위탁교육기관의 적정 규모 및 수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관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단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을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장방문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방문 컨설팅을 아무 자료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컨설팅 시 체크리스트 및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별 평가 도구 개발 및 자체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면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직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매년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위탁교육기관에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5) 원적학교 복귀 후 적응과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원적교로 돌아왔을 때, 적응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학교 내 대안교실은 원적교로 복귀한 학생의 적응교육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턴십 등을 통해 아직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Wee클래스 연계를 통해 추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6) 교사의 자질과 열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내 부설기관이 민간 비영리법인 기관보다 학생의 학교 적응, 보통교과 운영의 충실성, 대안교과 운영의 충실성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사의 열의 투입하면 학교 유형의 차이는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관의 보통교과 운영의 충실도 그리고 대안교과 운영의 충실도에 그들이 속한 기관의 법인 유형의 차이가 일부분 반영되었지만, 그 격차의 결정적 차이는 기관에 소속된 교사의 열의의 차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사의 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교육기관의 고용 안정성과 교사 효능감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개선할 점

연번	항 목
1	학업중단예방 사업 관련 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 강화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 개선 및 정보 제공
3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통한 조기 개입 및 위탁교육기관 연계
4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다양화
5	학교생활 부적응 사유별 학생 수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확대 및 축소
6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 질 관리
7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학생의 변화 모니터 및 사후관리
8	학교 복귀 후 적응프로그램 마련

다. 통합지원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원적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 구축

1) 일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일반학교에서는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규칙에 ‘학업중단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제 모든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기초학습 지원, 심리정서 지원, 복지지원 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가정 문제 개선

학생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상담기관 등 연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 문제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기관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가족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가족상담기관이 적합하다.

Ⅲ. 결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져 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도 그 중에 하나이다. 단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수많은 교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애쓰

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단순히 학업중단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학업중단 예방에서 더 나아가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반학교가 아니라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분노, 우울, 무기력감 등의 감정을 해소하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정책 중 하나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유별 전문성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지정해야 한다. 교육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위탁교육기관에 가는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적기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위탁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때로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위탁교육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에게도 나타나기도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학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위탁교육기관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대안교육 업무담당자가 아니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낮다. 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중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낮다. 일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교육청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대안교육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추진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필요한 연수를 놓치기 쉽다. 게다가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자료를 그대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위탁교육기관에 맞는 내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대안교육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일반학교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 일반학교와 발맞추기가 어렵기도 하다. 그러므로 위탁교육의 질을 높이는 연수와 일반학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도 그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

넷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적정한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수많은 사업 중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외부의 공감대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 위에서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 확보와 인력이 지원될 때, 위탁교육기관이 목

표로 삼고 있는 것이 달성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다섯째, 원적교와 위탁교육기관, 학부모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다. 위탁교육은 원적교로 복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원적교의 상황과 위탁교육은 맞물려 있다. 위탁교육기관은 원적교와 소통하며 일반학교에서 적응력을 높이는 교육에 힘써야 하고, 일반학교는 위탁 간 학생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하여 적응과정을 만들어 학생이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학부모님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위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님 스스로 자신의 가정 환경을 살펴볼 수 있고, 부모 자신이 개선할 점과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에 있는 경우라면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직원 건강관리와 적절한 보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위탁교육기관 교직원이 교육활동을 펼치며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교직원도 많다. 그러므로 위탁교육기관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적절한 보상체제는 위탁교육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적어도 일반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일곱째, 단위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교육청 내 조직도만 보아도 해당 교육청이 어떤 사업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해당 사업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의 업무담당자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업의 맥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

여덟째, 지역사회 협력 체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대안교육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나 단체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부분 지역의 상담센터, 비영리 사회단체, 청소년시설, 병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것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학생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자 하는 활동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무엇인가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

느 순간 변화는 일어난다. 위탁교육기관 현장방문 컨설팅을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합시다. 그리고 지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무언가 하나라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참고문헌

「심리정서지원 How to?」 광주광역시교육청(2022).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지원 방안」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22).

「학교 급별 학업중단 현황 분석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 광주광역시교육청(2020).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제고 방안」 김성기,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2018)

「대안교육 민간위탁 기관의 설립 유형이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과 운영 충실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선 등,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9권(2021)

[붙임] 시도교육청 생활교육/대안교육 조직도 참고자료

2023 시·도교육청 생활·인성·대안·상담 관련 조직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상담마음건강	대안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 역사, 통일교육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Wee프로젝트 생명존중, 자사예방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팀	학생성장지원팀	성인지교육팀
생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아동학대	생명존중, 자살예방 Wee프로젝트 대안교육, 학업중단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생활교육팀	인성·학부모교육팀	대안교육팀
생활교육업무	인성교육업무 학부모 자녀교육 업무	대안교육업무 학업중단예방업무 생명존중업무 Wee프로젝트 관련 업무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미래생활교육과			
미래시민교육	생활교육	대안교육	양성평등교육
미래시민교육 통일, 역사, 독도교육 학생자치	생활교육 학교폭력 Wee프로젝트	대안교육 학업중단예방 학교밖청소년지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정책과				인성체육급식과			
학교정책	학교지원	교육희망	학교보건	인성교육	체육교육	학생상담	학교급식
		다문화, 탈북 대안교육 학업중단예방 학교밖청소년 지원		생활교육 학생자치, 인권 세계시민교육 학생봉사활동 성인식개선 양성평등교육		생명존중교육 Wee프로젝 트 자살, 자해 관련 사업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학생생활·성인지	학업중단예방	평생교육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학생자치, 학생인권 평화통일, 역사, 경제교육 생태환경, 기후위기대응 다문화교육	학교폭력예방 학생생활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교육	Wee프로젝트 자살 예방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 센터] 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	평생교육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 공공도서관 활성화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생활교육	인권보호	상담대안교육	성인지교육
학생생활교육 학교폭력 청소년 단체 활동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활동 및 교권보호 학생인권 청소년문화활동 교육활동법률지원단	Wee프로젝트 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예방 학교밖청소년지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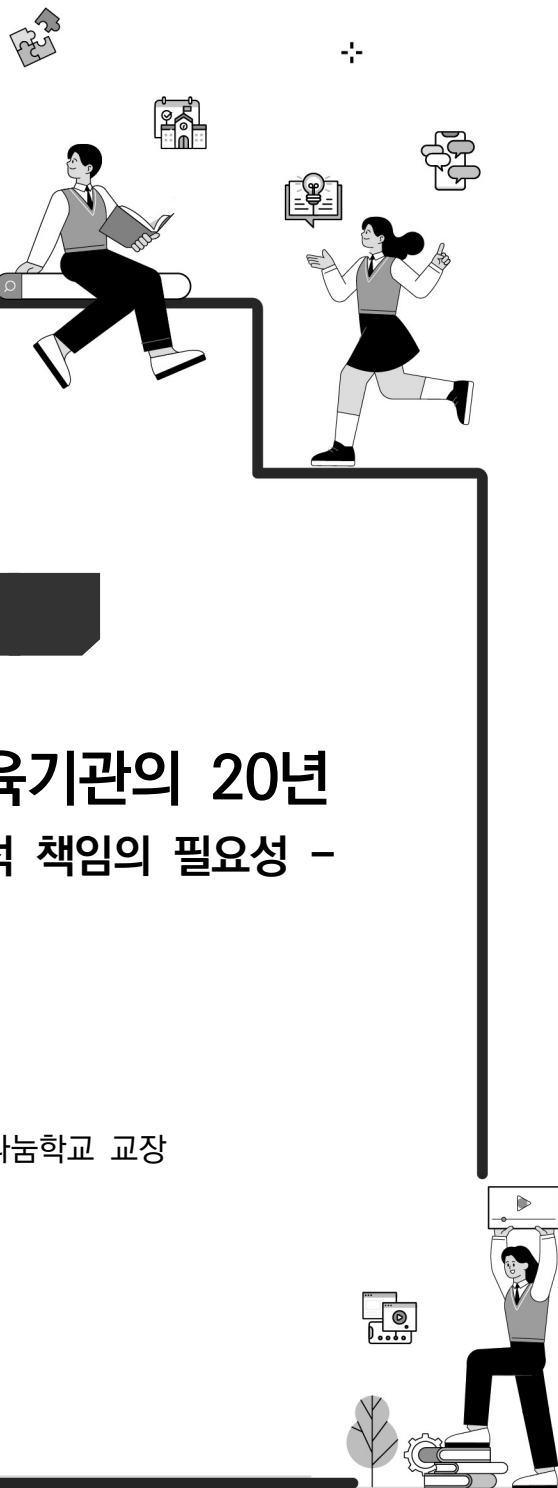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토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0년 - 사회적 책임과 전문적 책임의 필요성 -

강소영 사람사랑나눔학교 교장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0년 ” : 사회적 책임과 전문적 책임의 필요성

사람사랑나눔학교 교장 강소영

목 차

1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0년

- 서울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도전과 과제를 겪었는지를 토론.
- 위탁기관의 성과, 교육 방법, 교육 환경 등에 대한 변화와 발전 동향을 검토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교환.

2

"대안교육의 사회적 책임 vs. 전문적 책임 :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배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
-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안교육과 교육적 전문성을 중시하는 대안교육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

3

"진정한 대안교육의 기관 정체성 찾기 :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 대안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의 구조와 방향을 토론.
-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 개별 맞춤형 학습,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강화 등에 대한 기관의 정체성 탐색.

4

"Win-Win 없는 대안교육의 원동력 찾기 : 해결책은?"

- 대안교육기관, 원적교, 부모,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
-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모든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 모색.

5

"대안교육기관의 열의와 보상 : 현실적인 균형 유지하기"

- 교사와 교직원의 열정과 노력을 지원하며, 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
- 대안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제약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제.

I.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20년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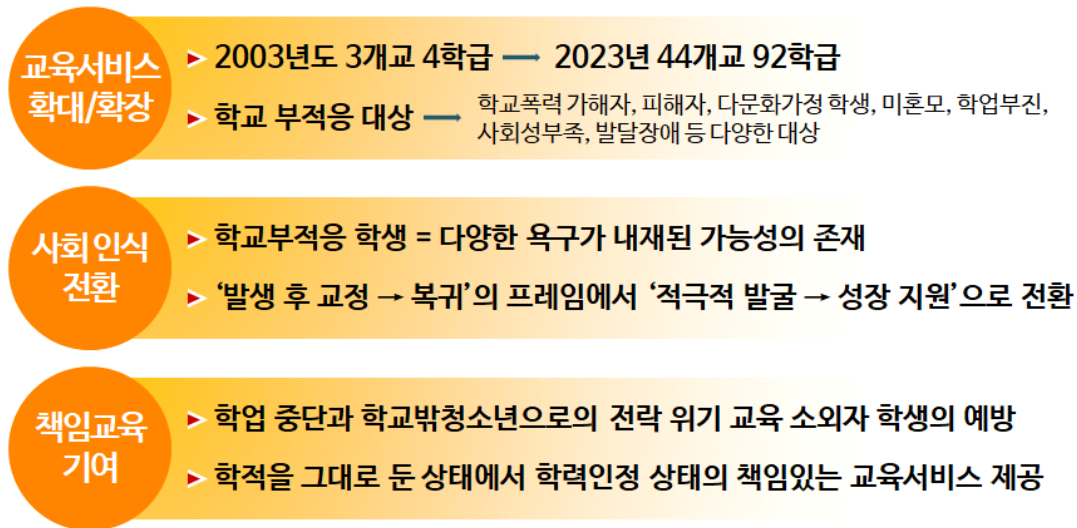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도교육 안에서 대안교육은 1996년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시작되었다. 1997년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특성화고교라는 새로운 학교 유형을 만들어 대안학교 제도가 입법화되었다. 이로써 제도교육 안에서도 대안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또한 도입하게 되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학업중단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가 아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본래 다니던 소속 학교에 학적이 있으며 교육청이 협약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마치게 되면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제도인데, 학교의 개념보다는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적응 지원체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에서 방치되기보다 대안교육 틀 내에서 다양한 보호 및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에 복귀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의 자격요건을 구비시켜주는 성격이 강하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만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라는 정체성으로 많은 노력을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부터 <위탁형 대안학교>로 위상을 격상하며 위탁과정의 대안학교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항 대안학교로 인정되는 학교만 대안학교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2017년부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면서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는 20여 년 동안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2001년 3개 기관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민간위탁 협약으로 7개교, 2007년 15개교, 2012년 30개교로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는 44개 기관(92학급)을 지정·운영하게 되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위탁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학생 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 교육 인력에 대한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은 위탁교육기관의 학급당 인원수 기준을 기존 15~20명에서 10~15명으로 낮추어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역할과 책임으로서의 성과



가. 학업중단 및 탈학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책임교육에 기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학업부진, 사회성 부족,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즉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교육 소외자 학생들을 자신의 원적(原籍)학교에 학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학력 인정상태의 책임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학생들의 탈학교 위험을 예방하는 책임교육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나.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다양한 욕구와 내재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으로 인식한다. 이는 '문제 발생 후 교정 → 원래 교육환경으로 복귀' 접근에서 '적극적인 잠재력 발굴 →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의 접근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운영

지난 몇 년간 교육 분야에서 대안교육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8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44개의 대안학교(92개 학급)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다른 지역의 교육청과 비교해도 우수한 대안학교 제도를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제도는 2012년 '위탁형 대안학교'로 개칭되었다가 2017년부터 다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가졌지만,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에 지속적인 지원과 장학을 통해 공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탁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탈학교 위기 학생의 학교탈락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고유한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키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춰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적응과 자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더불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부적응 학생부터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학업부진, 사회성 부족, 발달장애 등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육의 폭이 확장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II. 대안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적 책임

2001년 3개교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2023년 현재 44개교의 대안교육기관으로 양적으로 발전하였다. 대안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확립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학교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으

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학력 인정을 받고 한시적으로 위탁하여 교육을 통해 위탁생을 변화시켜 원적교로 복귀시켜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안학교가 아닌 위탁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학교 현장에서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2012년부터 <위탁형 대안학교>로 정체성이 변모하였다. 하지만 <대안교육지원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대안교육 정책의 변화로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인가? 대안교육으로서의 전문적 책임이 우선인가?’

1. 대안교육의 사회적 책임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교 중도 탈락 대책의 하나로 2001년도에 초·중등교육법 28조, 그리고 그 시행령 54조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일반학교와는 다른 대안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중도 탈락 예방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에 따라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작점과 역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

첫째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수용감을 증진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학교 부적응의 원인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업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로, 청소년들을 현실 세계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직업과 사회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업 중단 위기를 넘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와 통합을 촉진한다.

대안교육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다양한 학생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이는 학생들이 더 큰 사회적 의미와 연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과 복지비용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적 기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사회적

책임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정책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대안교육은 학교 폭력, 학업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지지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이고 정책적 지원과 지지가 필수적이다.

대안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교육정책의 협력적 관계는 더 포용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 수립자들은 대안교육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대안교육 기관과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며 얻은 경험은 교육정책에 효과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대안교육의 전문적 책임

교육이란 개인 또는 특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이상 또는 가치를 가지고 의도적인 환경을 통하여 미성숙한 아이나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교육의 개념을 넓게 생각한다면 생활의 도야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교육은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해서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인간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소극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 지식을 획득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생활에서의 교육은 사회화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과정을 통해 인간의 사회화되어 가며, 교육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사회 적극성을 기를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사회가 필요한 가치관이나 태도, 신념을 전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문화를 계승창조하게 되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기도 한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 형성을 위한 작용이라는 점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작용을 하며, 인간 개체가 지닌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의 소질을 계발하여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이라고 했을 때 학습을 통한 지식적 교육을 협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 주변 환경,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대서 출발하고 있다. 즉, 획일적이며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방법이 나타나고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 지식정보의 단순한 획득과 주입으로 경제적인 의미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우리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식정보의 단순한 획득과 주입이 아닌 지식정보의 가치를 판별하고 재구성할 판단력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이라는 행정적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대안교육의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육콘텐츠, 학생 관리의 세부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위탁형 대안학교 연합회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의 법적·제도적 지위 확보, 대안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다양한 사회적 재능과 자원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II. 진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원동력 찾기

진정한 대안교육의 정체성과 원동력은 위탁교육기관의 시작과 본질로부터 헤아렸을 때 그 실마리가 나타난다.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 부모, 교사, 기관, 원적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지자체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결국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생’에게 그 정답이 있다.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 ‘학생’으로부터 원동력이 생겨난다. 학생이 부재하고 학생의 에너지가 움트지 않으면 정체성도, 동력도 없이 무색무취의 대리 기관으로서 대안교육이 아닌 보호 교육과 행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론은 대안학교 즉, 학생을 위한 교육이 살아 숨 쉬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진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원동력은 학생 중심의 교육, 구체적인 삶과 현실을 연결하는 배움이 있는 교육, 사회적 포용, 혁신적인 접근, 교육 철학 및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나온다.

◦ 학생 중심의 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특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재미있는 학교’, ‘인간적 신뢰를 경험하는 학교’,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학교’를 제안할 수 있다.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사회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한 철학 속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출발되어야 한다. 각각의 독립된 개체인 학생들은 공동체 활동(수업)을 통하여 협력정신, 타인존중, 양보와 타협, 공동체적인 가치존중의 의미를 느끼고 행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삶과 현실을 연결하는 배움이 있는 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력인정에 맞게 출석과 교과 학습 발달자료, 생활기록부 등 많은 교무

학사의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교과수업의 한계에 머물게 될 때가 많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자신의 삶을 별개라고 생각한다.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삶을 연결해 들어가면 학생들은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며 배움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이에 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큰 교육 틀 속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경험’에 의한 배움, 교과학습은 ‘지식’에 의한 배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활동주의와 체험주의에 빠지고 교과학습은 지식주의와 기능주의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교과학습에서의 ‘배움’을 실현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삶과 현실을 연결하는 배움이 되어야 한다.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연결하고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내가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활동과 연결 짓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을 교재교구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재를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포용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포용을 강조해야 한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생태주의는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평화·공존·인권·사회적 포용과 같은 개념과 맞닿아 있다.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 가정 안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존하는 삶, 발달 경험과 선택의 자유라는 인권의 보장이 가능한 삶, 사회적으로 차별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하는 삶은 생태주의가 공존과 인권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을 학교 안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포용해 주었을 때 우리의 교육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혁신적인 접근

기존의 교육 모델과 차별되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학생과 교육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학습 방식, 평가 방법, 교육 기술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는 기관이 되도록 늘 고민하고 거듭나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에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대안교육, 교실에서의 교육에서 마을과 지역사회의 교육을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초등과정-중등과정-고등과정의 교육과정의 단편성을 벗어난 과정 통합형 프로젝트 교육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교육적 사례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교육 철학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철학을 가지며, 이를 실천하고 사회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려고 부단히 애써야 한다. 사회적 요구와 가치에 불응하며 독단적이고 고립된 교육을 지향하면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적응에도 큰 장애를 입힐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생애 중심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조직해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과목별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과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며 미래 교육의 행위 주체성에 맞는 사회적 교육 요구에 대한 응답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IV.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열의와 보상 찾기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대안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특성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 연수가 필요하고, 학업부진과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 대상의 가르침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 등에 관한 연수 또한 필요하다.

사회공동체에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러 사람이 지혜와 정보를 모으고, 그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왔다. 사람과 사람이 협력해서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첨단기술을 융합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의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보호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서에서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과 함께 배우고 탐구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사가 학생들과 충분히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연수지원이 필요하다.

○ 대안교육기관 간의 연계 및 활성화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간에 연계가 활성화되어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기관 간의 의견 교류와 프로그램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초등, 중등, 고등의 연령별 교육과정별 연계, 느린 학습자 및 경계선, 다문화 및 탈북학생, 정서지원 및 심리치료 대상별 연계,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역공동체별 연계 등 대안교육기관들의 연계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안교육 대상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안학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학생 문제에 따라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만한 인력도, 시간도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습 부진, 성격장애, 학교 폭력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움 부적응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대안교육 속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유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학업을 중단할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이고 계속 다닐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각 요소에 따라 대응하고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방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 정서 및 심리치료 중심의 맞춤형 대상에 맞는 대안교육기관 지정 확대

학생의 정서발달 행동 검사 등을 통해 적지 않은 학생이 어려움이 많으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중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대상이 적지 않지만, 막상 위탁 의뢰할 만한 기관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존의 장기 입원환자 대상의 병원학교의 모델을 넘어서서 정서 및 심리치료 중심의 맞춤형 대상에 맞는 대안교육기관 지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 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격려와 지원 필요

일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경우 운영상의 미숙함을 보여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일반 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배척당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문성과 인내심 등 노후가 요구된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학생 지도에 임한 기관 종사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안교육에 열의가 있고 능력 있는 스텝을 키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안교육 종사자도 직업인이며, 당연히 기본 생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담당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기억해야 할 점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는 수단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흔들리는 아이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통해 아이들은 일탈 욕구를 이겨낼 수 있다. 대안교육 교사에게

사명감과 소명 의식만을 강조할 수만은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자원봉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다고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격려와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적절한 예산지원과 엄정한 평가를 통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확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맞는 적절한 예산지원과 객관적이고 평가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취약한 인프라를 강화해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인천의 경우 인건비 지원을 포함), 서울의 경우 시설 임대료 지원이 되지 않으며 강사료와 학생 수련 활동비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제도권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 학교로서의 독립성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적절한 예산을 지급하고, 객관적이고 평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관리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마다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대안교육기관은 공공성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학교 교육의 기본과 책무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위탁생의 특성상 집중도와 학업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일반 학생에 비해 위탁생은 개별적인 지도와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바, 현재 학급당 인원의 기준을 대상별로 맞추고 정서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프로그램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주제발표

교육의 오래된 미래, 대안교육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있고, 교육은 행복해야 한다. -

전정일 과천맑은샘학교 교장



1. 교육의 오래된 미래, 대안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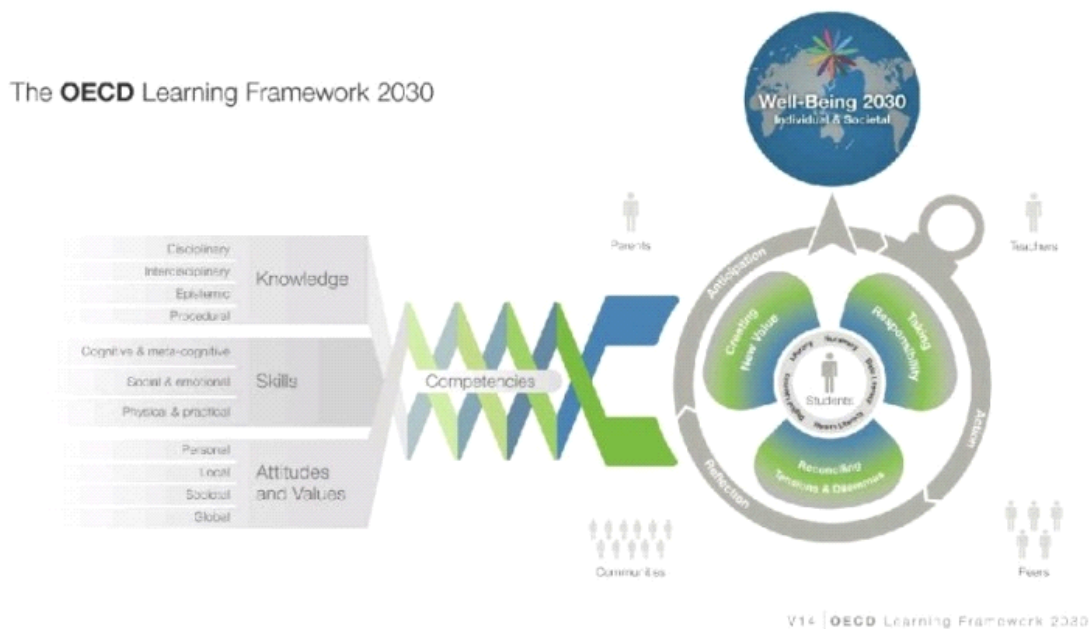
올 5월, 나는 덴마크에 있었다. 약 한 달 동안 북유럽 교육 선진국 덴마크 기숙학교 Efterskole와 통학학교 friskole에 지내며 덴마크 교사들과 학생들을 만났다. 나는 이번 연수 이전에도 덴마크 연수를 두 번 다녀온 경험으로 덴마크 폴케스콜레(공립학교), 프리스콜레(자유학교 1-9학년), 애프터스콜레(1년제 기숙학교), 폴케히어스콜레(성인 시민대학), 5년제 교사 양성 대학인 자유 교원 대학을 두루 경험하고 덴마크 학생들과 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두 번 다 겨울에 진행된 교사 연수단 프로그램이라 여러 학교를 들리다 보니 방문 시간이 반나절이거나 그보다 짧았다. 이번에는 덴마크 애프터스콜레협회와 프리스콜레협회 도움을 받아 나 홀로 다녀왔다. 언어 중심의 특별한 교육 과정을 지닌 마을교육 European Efterskole와 낚시, 승마부터 정말 다양한 자연 속 바깥 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Efterskolen Flyvsandet,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어 가는 것을 강조하는 Vester Skerninge Friskole 프리스콜레는 학교마다 특색이 뚜렷해 우리나라 대안교육과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의 깊이를 더해 주고 상상하는데 좋은 보기가 되었다. 2022년에는 영국 써머힐에서 열린 2022IDEC(세계 민주교육 한마당)¹⁾에 참가해서 세계의 민주교육(대안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며 교육의 현재와 미래 흐름을 확인하기도 했다. 가까운 두 번의 해외 연수를 언급한 까닭이 있다. 해외교육기관을 탐방하고 다녀온 뒤 보고서를 쓸 때마다 반복해서 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안교육 현장은 민주스러운 교육공동체와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이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대단하며 뛰어나다.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교육선진국과 세계 여러 나라 민주교육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말과 노래, 학생 자치, 교육공동체, 대화와 상호작용, 협력교육, 민주시민교육, 함께 살기, 노작교육, 자연친화, 생태전환교육, 학습자 주도, 프로젝트 교육들은 한국의 대안교육연대 소속 대안교육기관의 보편 교육과정이다. 또한 삶을 위한 교육, 삶을 위한 학교라는 철학과 교육과정은 한국의 대안교육의 철학과 같다. 2백년이 되어가는 덴마크 자유학교의 역사, 그룬트비와 크리스텐 콜의 교육 실천은 지금의 덴마크 사회를 만들었다. 덴마크 자유학교와 세계 민주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의 대안교육연대 교육 현장처럼 미래교육을 구현하고 있으며 세계 보편의 민주교육 과정과 같다. 역사를 통틀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교육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교육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고, 교육의 본질은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된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곳은 부족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이라 자부한다(물론 말로만 대안교육일 뿐 입시와 경쟁위주 교육을 하는 곳은 제외된다). 대안교육이 오래된 미래교육이라는 말을 하는

1) IDEC은 International democratic education conference의 줄임말로 세계 민주교육 회의쯤 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 민주교육 한마당, 세계대안교육한마당이다. 1993년부터 연 1회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국제회의인데 2014년에는 대안교육연대가 광명시와 함께 한국IDEC을 개최한 덕분에 대안교육현장에게는 친숙한 행사다. 해마다 여러 나라가 번갈아가며 개최하는데, 이스라엘,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인도, 우크라이나 등에서 열렸다.

까닭은 세계 보편의 미래교육과 민주교육 과정이 구현되고 있고,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이 아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교육을 20년-25년 넘게 실천하며 4C, 6C²⁾같은 미래교육 역량, OECD 2030 미래 교육과 역량(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 OECD교육2030 학습나침반(OECD Education 2030 Learning compass)³⁾의 학생의 행주주체성이 현재 그대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OECD, 2018, The Future We Want.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의 교육 2030의 학습프레임워크

- 2) 2009년에 나온 '21세기 핵심역량(21st Century Skills)' 책에 소개되고, 2016세계경제포럼에서 21세기 미래인재 핵심 역량으로 꼽았다. 4C-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소통능력(Communication), 협업능력(Collaboration)/ 4c에 더해 '최고의 교육'에서는 6c를 이야기했다. 6C-Collaboration(협력), Communication(의사소통), Content(콘텐츠),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reative innovation(창의적 혁신), Confidence(자신감)
 - 3) OECD 교육 2030 미래 교육과 역량(OECD Education 2030: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프로젝트는 29개국이 참여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년부터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한 방향 설정을 염두에 두고 출범시킨 교육사업이다.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이 성장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년 OECD는 교육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열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래 교육 및 기술 2030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및 학습을 위한 공통 언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의 1단계는 커리큘럼 재설계 및 2030년 학습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발에 중점을 둔다. 2단계는 커리큘럼 구현 및 2030년 교육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생성에 중점을 둔다.
- OECD교육2030 학습나침반(OECD Education 2030 Learning compass)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다. 학생들이 자기 주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개인과 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학생의 모습을 학생행위주체성(Student Agency)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홈페이지

The OECD Learning Compass 2030 is a learning framework that aims to help students navigate towards future well-being. It creates a common language about broad education goals.

>> Click here to find out more



4)

II.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법정교육기관, 그러나...

2020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교육의 전환이라 불릴만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법률 제17887호,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제정으로 한국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기관학교가 생기게 되었다.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취학유예로 학부모의 실정법 위반을 해결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합법화 하는 경로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1998년 대안교육특성화학교, 2005년

4) Learning Compass 2030은 학습자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역 사회와 지구의 복지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정의한다. OECD 학습 나침반 2030은 학생들이 개인과 공동체, 지구적 차원의 건강과 행복을 돕도록 개발되었다.-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홈페이지. 국내 2022개정 교육과정 초안에 영향을 주었다.

대안학교(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60조 3) 법제화에 이은 3차 법제화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느슨한 형태의 과도기 특별입법이지만,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학교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법률이다.

모두 알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학령인구 수가 크게 줄고, 교육부는 정의로운 공교육 강화 정책을 펼친다지만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안교육 안에는 대안교육연대⁵⁾,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구 기독교대안학교연맹)⁶⁾ 소속 현장과 소속되지 않은 교육현장이 500개에서 800개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특성화학교와 각종학교로 1, 2차 법제화를 통해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등장했고, 그 뒤 수차례 대안교육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회 발의가 있었지만 2020년 12월 9일에서야 초중등교육법 밖에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2022년 7월 21일 기준 231개 대안교육기관이 지역교육청에 등록⁷⁾했다. 물론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 아직 더 많다. 따라서 등록대안교육기관, 미(비)등록대안교육기관이란 말이 새로 생겼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상의 대안교육기관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공교육 현장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만이 여전히 공적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재정지원과 학력인정이 빠져 있어서 교육부는 시급히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취지에 맞게 초중등교육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까지 필요한 재정지원과 법률에 명시된 대안교육 정책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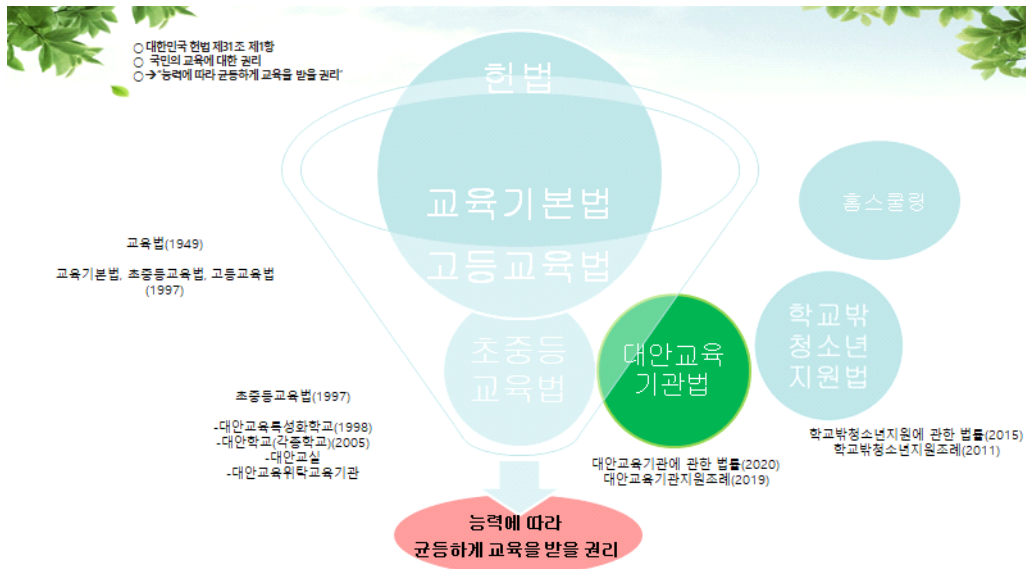
또한 대안교육기관법과 대안교육기관학교에 대한 홍보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선택지가 있음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과 타 법률 개정안을 시급히 완료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이외에 법정교육기관의 지위를 얻고 공교육 범주에 들어갔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5) 경쟁과 질서를 강요하는 교육 현실과 고립된 개인으로 소외되어 가는 삶의 현실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와 인간에 대한 애정을 지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 나갈 수 있는 공동체적 품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는 교육과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 교육의 문제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교육적 실천을 통해 대안적인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다. 대안교육현장과 교육단체와의 연대 사업, 대안교육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출판 사업, 청소년과 청년의 진로 관련한 사업, 교육정책, 교육제도,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 대안교육 교사를 위한 연수와 교육에 관한 사업, 기타 대안교육연대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대안교육연대 정관) 전국 56개 교육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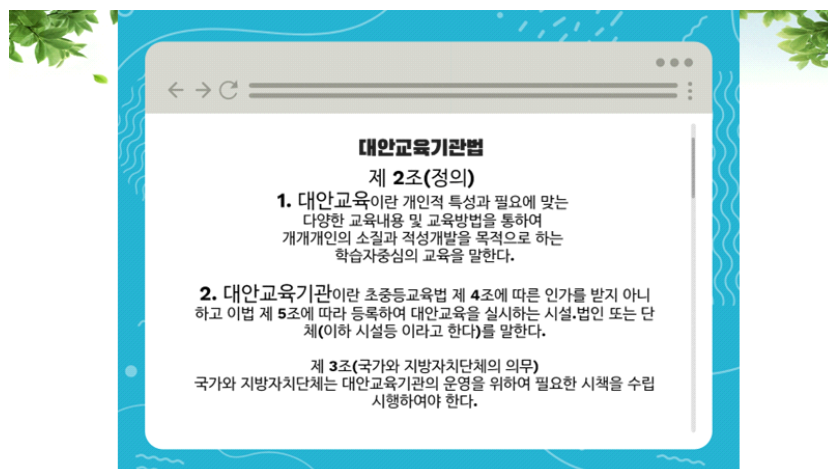
6) 대안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대안교육기관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정관)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출발했다.

7) □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교육부 대안교육기관 현황(2023. 7. 21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7	9	6	7	10	7	2	1	5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3	9	10	7	6	231



그런데 한국의 대안교육은 위기이다. 입학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많은 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가 지원 없이 민간의 힘으로만 교육기관을 운영하다보니 해마다 겪는 재정위기가 학생수 감소로 더 심각하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 재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구조에서 학생 수 감소는 그대로 직격탄이 되어 교사 수를 줄이고 만다. 교육 역량이 사라지는 것이다. 행복 교육을 전줄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교육은 세계의 많은 나라의 교육자들이 인정하는 놀라운 대안교육 역량이 있고, 대안교육은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 많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혁신학교, 꿈의학교 같은 공교육 혁신 정책에 반영되었다. 코로나19가 알려준 교육의 교훈 <학교 안과 밖 어느 곳에서든 행복한 배움은 가능하고, 작은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중요하고, 지역마다 마을교육공동체로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생태교육으로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을 말하고 실천하는 때, 대안교육은 그대로 우리나라의 교육 자산이다. 한국 교육의 훌륭한 교육역량이 사라지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빠르게 나와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미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법



과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에 더해 뚜렷한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으니 교육부와 교육청, 자치단체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정책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안교육 기관법 제정 이후 교육청과 지방자치 단체 간 협치가 더 부각되고 있다. 교육청에 등록했으니 이제는 교육청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지방자치법 주민 복지 사무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한 일부 재정 지원을 맡아 온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법률 미비와 개정을 까닭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지원 조례>에 나온 지원조차 미루려고 하고 있어 정작 대안교육 기관 법의 제정 목적인 대안교육기관 아동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나서서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과 다양한 법적 제도를 정비해 혼선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안교육 기관 법이 법률화되고 시행령에 따라 전국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2023. 7.21 기준 전국 231개 기관 등록)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청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2021.12.29.), 부산광역시교육청(2022.4.13.), 경남교육청(2022.7.7.), 전남교육청(2022.12.22.), 서울특별시교육청(2023.1.12.), 광주광역시교육청(2023.6.14.)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전북 교육청(2023.4.28.)처럼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적시하는 형태로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한 곳도 있다.

교육청	조례명	제(개)정일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1.12.29.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4.1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7.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12.22.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 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1.12.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023.4.28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기관지원 조례	2023.6.1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으로 대안교육 안에서는 위기의 시절을 겪으며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묻는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입시와 경쟁에 반대하고 대안 사회를 위한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세우며, 마주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대책을 교육 공동체마다 온힘을 다해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교육재정에서 교사 급여가 가장 큰 비율이다. 당장 교사 급여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모두 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처럼 일찍부터 교사 급여를 지원 해온 곳도 있지만, 20년 넘게 지원 없이 자립을 실현 해온 많은 교육 현장의 교사 급여는 그만큼 열악하다. 그래서 역시 대안학교

교사도 이직률이 높고, 여전히 3D업종에 버금가는 급여와 노동조건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지원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니 자구책, 적극적으로는 생존 전략을 찾고 있다. 물론 학교마다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연대체 조직에 그만한 재정 여력을 위한 재정을 조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안교육 알리기와 교육과정 안정 같이 기본에 해당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오랫동안 교육 공동체를 꾸려 마을교육공동체로 진화한 대안교육의 경험을 살려 마을 속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안정 시켜 가고 있고, 대안교육 출발부터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담아 온 생태 교육과정은 기후 위기 시대 더 적극 실천을 모색하고 지역에서 함께 비상 행동을 조직하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현실은 절박하다. 마을 활동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교육 운동가로 살아온 대안학교 교사들이 떠날 위기에 처한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낮은 급여에도 행복한 교육을 꿈꾸며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온 교사들의 생존권마저 지키기 어려운 현재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포함한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를 벗어난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교육 정책과 공적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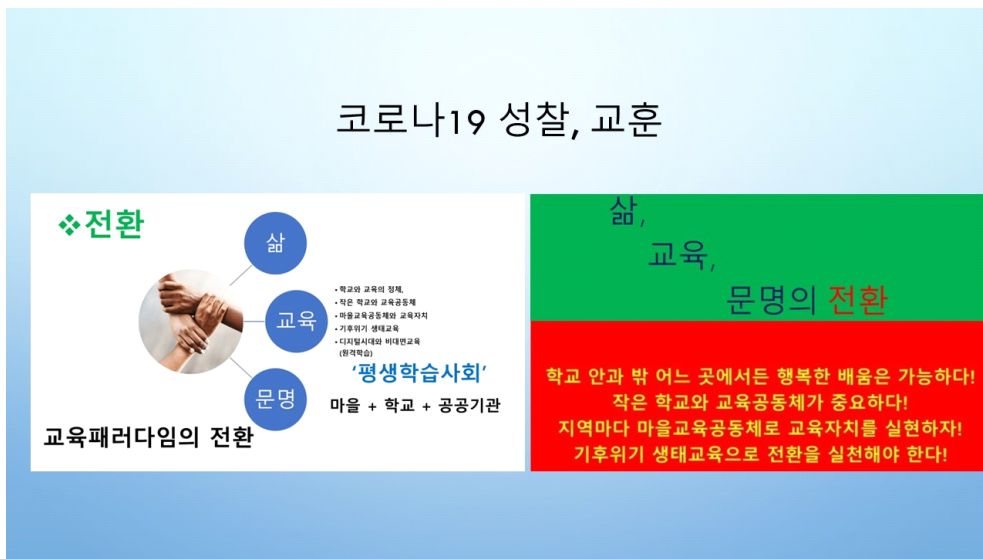
Ⅲ. 교육의 전환과 미래교육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어려움이 줄곧 되고 있는 때다.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시대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고, 자본 소비사회에서 커져 가는 빈부 격차와 재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마주할수록 걱정이다. 세월호 교훈을 잊어버린 듯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알려준 가르침은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알려준 교훈인 전환은 어느새 말잔치에 그칠 듯 싶어 또 걱정이다. 문명의 전환, 교육의 전환, 삶의 전환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이 중요한 까닭이다.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는 교육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문명의 정체, 학교와 교육의 실체를 깨달으며 아이들이 살만한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와 교육의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중단된 세상을 산 적이 어느새 과거가 되었다. 모두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원격 수업과 가정학습으로 학습을 대체했던 그때, 코로나19 뒤 세상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현재 교육과 학교 체제에 대한 물음 또한 다양한 처지에서 제안되었다.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인간만의 경제 성장을 추구해 온 자본 소비 세상을 꼬집는 비판과 성찰, 개인의 성찰과 여유의 시간으로 이 시기를 제안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런데 건강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위기가 한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지는 지구촌

시대 경제 체제이다 보니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 위기, 생태계와 인류 멸종의 위기, 바이러스 위기, 전쟁, 핵방사능 위기, 경제 위기, 실업 위기까지 탐욕의 시대 수많은 위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지옥일 수밖에 없다. 곧 닥친다는 과학자들의 증언인 기후 위기가 곧 식량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코로나 시대 대도시 사람들이 입코가리개(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지만 먹을거리를 사려고 해도 살수가 없는 때가 온다면 그 배고픔의 줄서기는 가능하구나 한 걸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일상이 되는 때 교육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수업 방식은 무엇인지, 교육과 학교 체제에 대한 물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적극 제안하고 공론화시켜야 할 것,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살필 것들, 지역사회에서 할 노릇까지 두루 살피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 구체로는 원격 학습 권장 시대의 교육과 교사의 존재 방식과 노릇, 전염병 창궐 시대 건강과 안전 수칙, 학사 일정 조정의 범위도 있었다. 한국 교육이 마주한 현실이며 담아야 할 이야기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첫째, 교육의 본질은 무엇 인가이다. 교육은 본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고, 교육 기회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은 그러한가. 삶을 위한 교육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배움에 설레고 교육의 삼 주체가 행복한 학교는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대안 교육이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감염병 시대를 겪으며 문명의 전환을, 후쿠시마와 세월호 이후 더 교육의 전환을 주장해 왔다. 대안교육이 앞장서고 혁신 교육이 그 물음에 답해 왔다. 위기의 시대, 교육은 무엇을 담아야 할까.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처럼 기후 위기를 교과서에 가두지 않고 삶과 행함이 통일되는 교육을 우리의 교육 현장은 얼마나 담아내고 있을까. 미래 변화 대응 역량 및 기초 소양 강화로 지

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담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섰던 이유이다. 다시 오래된 교육의 미래를 실천 해온 교육 현장들을 들여다보아야 할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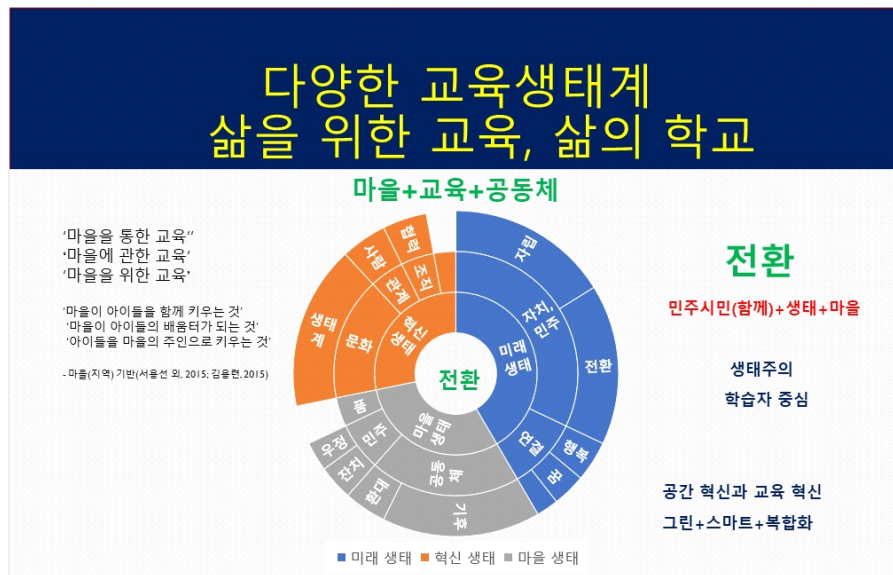


〈교육부 블로그, 2021. 11. 26〉

둘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원격 수업과 스마트 교육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코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 스마트 교육 전성시대다. Chat GPT와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는 때에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가 갖춰지면 저절로 미래교육이 일어나는 걸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되면 미래교육 역량이 길러지는 걸까? 디지털 시대 자연친화 감수성과 온 몸으로 맺는 관계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질문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가. 교과 통합과 온라인 매체 활용 교육이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디지털과 온라인 학습 활용에 대한 토론, 실현 가능한 준비와 재정, 교사 교육까지 교육의 본질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미래의 교육 방식과 수업 방식, 교수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메타버스, 코딩 교육 모두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 가는 교육의 본뜻, 학생 중심의 교육이란 원칙과 방향을 놓아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 담장을 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과 마을교육공동체를 가꾸고 실현시키는 이야기다.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함께 모색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마다 제기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처럼 이미 앞서서 마을교육자치회를 만들어 마을에서 교육을 함께 가꾸며 실천하는 곳이 있다. 세계 교육 흐름 또한 지역사회와 연결된 교육이 미래교육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품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육 주체들은 무엇을 애써야 할까. 온 마을이 배움터라면 지역사회에서 할 노릇, 우리가 적극 제안하고 공론화시켜야 할 게 무엇인가.

교육 영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담론을 제안하고, 기후 위기와 전환 교육의 가치를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담아내며, 마을교육공동체를 안정되게 밀고 갈 협동조합 들을 세우고, 지역사회 교육 단체에 참여해 교육 연결망을 구성하고, 교육의 화두를 꾸준히 제기하는 몫이 지역사회 교육생태계에게 있다. 미래혁신 교육지구 와 마을학교 운영, 지역 시민 단체와 결합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실현, 마을 속 교육과정, 전환 교육의 실천으로 온 마을이 배움터임을 보여줄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 대안교육기관이 함께 가꿀 교육이다.



Ⅳ. 미래교육은 현재 행복한 교육이다,

만약 학교가 진정으로
삶에 이로운 교육기관이 되려면
학교는 교육도,
학교 자체도 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로지 삶만이 그 필요조건이 되어야 한다.

- 그룬트비

미래교육을 말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둘, 현재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공동체의 철학과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셋, 학생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 미래교육을 말할 때 미래교육의 역량으로 꼽는 게 무엇 인가다. 수많은 곳에서 4C, 6C를 말하고 있고, OECD 배움의 나침반-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말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은 이미 수많은 한국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기르고 있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행위 주체성이 살아나는 교육공동체를 가꾸고 교육과정을 살찌우는 교육기관이 한국에 있다. 그렇기에 한국의 대안교육은 한국의 미래교육기관, 미래교육 현장으로 공교육의 미래교육 모델이 되어 각종 공립대안학교와 미래학교 설립의 마중물 노릇을 해 왔다. 삶을 위한 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다. 전인교육과 미래교육은 배움을 나누고, 삶의 주인으로 함께 살기를 실천하는데 달려 있다. 프로그래밍과 스마트 기기 활용이 전부가 아닌 학교 일상에서 마을로 학교를 넓혀 배움을 나누고 소통하는 삶을 위한 교육이 미래교육이다. 생태 전환, 마을교육공동체를 20년 가까이 그보다 더 오래 학교 설립 이후로 꾸준히 실천 해온 대안교육연대 소속 교육 현장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학교 모습이다.
-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교의 정체를 가르쳐준 게 코로나19다. 교훈은 새기라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이후, 후쿠시마 이후 교육과 사회를 얼마나 말했는가.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과 사회는 여전히 그대로다. 물론 일부 진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연구하고, 그린 스마트 기후 학교 에코스쿨 정책에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 학생들은 여전히 힘들다.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 때문이다.

고교 학점제⁸⁾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⁹⁾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을 경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밖 교육과정이다. 자유학기제로 시작해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어온 정책 또한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현재 교육 체제에서 그나마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 체제를 흔드는 교육정책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율로 시행하던 자유학년제는 2025년부터 축소되어 자유학기제로 유지되고 3학년 2학기를 진로연계학기로 배정한다고 한다.

- 8) 초·중등 교육법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 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④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신설 2021. 9. 24.>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9. 24.>
- 9) 중학교 과정 3년 중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지필 고사를 보지 않고,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동아리,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죠. 시험 대신 독서토론, 역할극, 진로체험 및 프로젝트 등 참여형 수업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진로 탐색이 가능하답니다. [출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뭐가 다른 걸까요?|작성자 교육부 블로그
- 자유학년제는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시행 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발견되어 2020 년도부터 부산, 대전 등 네 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로 확대됐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중학생 기간 중 한 학기였다면,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출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뭐가 다른 걸까요?|작성자 교육부 블로그

<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 >

'21년 발표 사항	추진 상황 점검	(개선)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및 교육과정 다양화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 어려움 ⇒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다양한 과목 개설 어려움	개별 학생 맞춤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온라인학교, 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과목 개설 지원
2025년부터 모든 선택과목 석차등급 미산출 공통과목 석차 9등급 유지	성취평가 과목 확대에 따른 평가 신뢰도 확보 요구 ⇒	평가관리센터 설치 및 '학교-교육청-외부' 3단계 점검 강화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 착수 (28학년도 대입 적용)	학교교육 정보 대입자료 제공 미흡 ⇒ 학생·학부모 대입 불안	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 및 과목 관련 정보 대학에 확대 제공 2028 대입개편 방안 발표

출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작성자 교육부 2023. 6. 21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알아보기

책임교육학년제로 학습과 성장을 집중 지원해요



책임교육학년제란?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를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는 제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초3, 중1 시기에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집중지원이 필요해요**

출처: 책임교육학년제로 학습과 성장을 집중 지원해요!|작성자 교육부, 2023. 7. 11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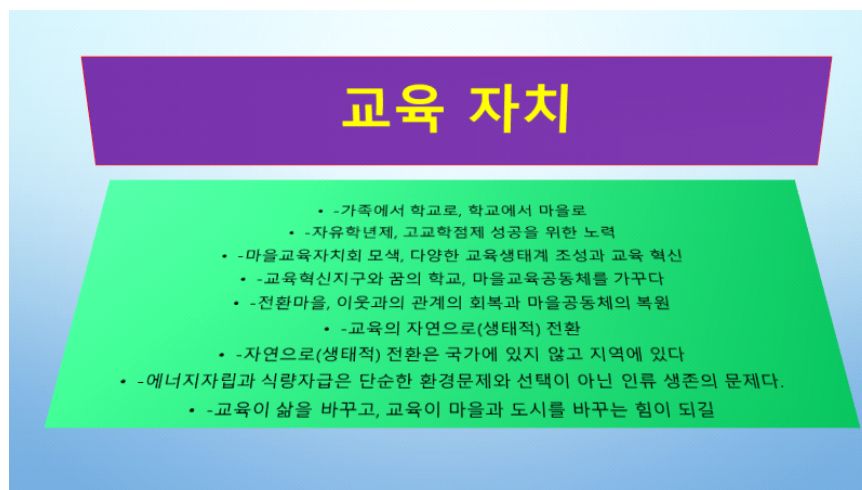
-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믿어야 한다. 기다려줘야 한다. 기다림이 교사 노릇의 전부일지 모른다. 다양한 재능과 끼를 지닌 아이들이 저마다 배움의 속도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려면 작은 학교 규모로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작은 교실, 작은 공동체가 다양한 교육생태계의 시작이다. 공간 혁신, 그린스마트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고, 배움에 설레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협력은 서로 처지를 인정하고 서로 도우려는 자세부터가 시작이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상 교육기관의 협력의 시작은 현재 더 어렵고 소수자 교육을 길을 걸어온 대안교육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99프로가 1프로를 품어 안지 못하고서 어떻게 민주와 자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구체 협력 방안 역시 상상력에 달려있다. 대안교육을 동등한 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한다면 상상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학교 밖 체험활동과 여행, 농사교육, 진로교육, 작은 규모의 교육활동에 뛰어난 교육실천 경험이 공교육 속에서 반영되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유학기제, 경기이룸학교, 미래(혁신)교육지구가 함께 말하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자치의 길에서 함께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짜고 제도로 뒷받침하기를 바란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에서 행복하도록 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오디세이 학교¹⁰⁾도 좋은 보기다. 경기이룸학교(경기꿈의학교¹¹⁾)가 2023년에는 경기이룸학교로 바뀌었다와 몽실학교¹²⁾ 모두 많은 대안교육의 경험들이 함께 가고 있는 사례다.

- 10) 오디세이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덴마크 '에프터스쿨'을 한국에 적용해 서울의 대안교육기관과 연계를 바탕으로 설립한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자유학년제로 학력인정 공립 각종학교이다. 통학형 캠퍼스로 공교육 기관(혁신파크, 이룸), 대안교육 기관(공간민들레, 꿈틀학교, 하자센터)이 있고, 기숙형 캠퍼스로 꿈틀리 인생학교가 있다. 오디세이학교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성찰과 체험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삶과 배움을 일치시키는 1년의 전환학년 (Transition Year)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오디세이학교 홈페이지.
- 11)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8년 동안 진행해온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라는 구호처럼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이다. 매년 경기도 학생의 약 2.5프로 학생이 참여하고 약 2천여 개 꿈의학교가 방과후와 주말, 방학에 열린 마을 학교였다.
- 12) 스스로 꿈[夢]을 실현[實]한다는 뜻으로 2014년 마을학교 '꿈이름배움터'로 출발한 몽실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꿈이름배움터'를 거쳐 학생 중심의 거점 교육공간으로 자리잡은 학생자치배움터이다. 몽실(夢實)학교는 지역사회협력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생자치회 활동, 학교 밖 배움터 활동, 메이커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상상력으로 만들어 가는 학교 밖 배움터입니다-2021몽실학교 홍보책

- 무엇보다 사람이 만나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이 함께 만나서 직무연수를 하고 서로 배움을 나누는 게 설계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나도록 제도로 보장하고 연수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V. 대안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 정책

- ☞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미래교육 현장이다.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름만 대안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다)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은 같이 간다. 그런데 현재 대안교육의 생존은 어렵다.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로 가는 게 아니라 후퇴기로 접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대안교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혁신교육으로 들어갈 때 민간주도 대안교육기관은 철저하게 지원이 없었다.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었지만 오히려 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지원재정을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는 때다.
- ☞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양한 작은 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뜻에서도, 대안교육이 혁신학교의 상상력의 바탕이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당장 정책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문을 닫고 모두 사라진 다음에는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교육기관법, 또는 비인가 미인가 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다양한 교육생태계이다. 헌법, 초·중등교육법까지 살펴서 이제는 교육 의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기관은 미래교육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육 현장이다.



☞ 특별하게는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꾸준히 실천해온 대안교육 성과를 보편화하고 더 안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안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서

- 1) 특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률과 조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안교육은 위기다. 신입생 감소로 재정 위기이다. 재정위기는 그대로 교사 감축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민간이 대안교육기관을 10년 이상 20년 넘게 운영해왔다는 것은 한국의 대단한 교육 자산이며 교육 역량이다. 혁신학교 꿈의학교 모두 대안교육의 상상력과 실천을 근거로 발전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모르쇠하면 안 된다.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서 눈부신 교육실천을 벌여온 대안교육 교육주체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육의 앞날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하는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다. 문제는 의지이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특별법인 대안교육기관법에는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이 빠져있다. 그래서 과도기 입법이다,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이 다뤄지고 있다. 법률이 정비되기까지는 교육청과 일반지자체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포함한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타법 개정이다. 교육청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법과 학교밖청소년지원 조례가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안교육기관이 적시되어 재정지원이 현재 학교 재정처럼 일반화되려면 갈 길이 멀다. 현재 대안교육기

- 3) 대안교육기관법에 적시된 대안교육 정책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¹⁴⁾ 설치와 활동으로 대안교육기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사 연수를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대안교육의 핵심 역량이며 심장이다. 대안교육 교사 양성과 재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미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획자, 퍼실리테이터,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노릇으로 교사 역할이 바뀌고 있고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는 시대다. 학생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교사, 교과통합을 실천하며 수업의 질을 높여가는 교사, 교육기관에서 지역에서 배움과 나눔으로 교육공동체를 품으로 만들어가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연수가 교육의 핵심이다. 교사는 걸어다니는 교육과정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교사와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기관학교 교사, 마을학교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교육현장을 일궈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사 연수 정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 교육청마다, 지역자치단체마다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교육 현장을 연결하여 함께 미래교육과 마을교육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역의 교사들이 공동으로 직무연수를 받고 함께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교사양성을 위한 기관을 민관이 협력해 설치하거나, 오랜 경험과 강사진이 확보되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민간에서는 대안교육연대에서 대안교육 교사양성기관으로 함께 설립한 '삶을 위한 교사대학'과 대안교육 연구자를 양성하는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는 2023년 10주년을 맞이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적시된 대안교육 정책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설치와 활동을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 4) 대안교육계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정리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도와야 한다. 작은 학교와 교육공동체처럼 숨어있는 교육과정을 소중히 해야 한다. 20-25년 넘게 교육 자치로 민주스러운 교육공동체로 학교를 운영한 대안교육 현장의 경험을 일반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대표되는 불확실성 시대에 작은 학교와 교육공동체는 교육의 대안으로 서고 있다. 농사교육, 생활기술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자연 속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일놀이 교육과 교과통합, 다양한 손끝활동, 식의주 프로젝트 교육처럼 삶을 위한 교육을 펼치며 삶을 위한 학교로서 행복한 교육을 일궈온 대안교육계의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정리하여 모든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시범 실시하도록 도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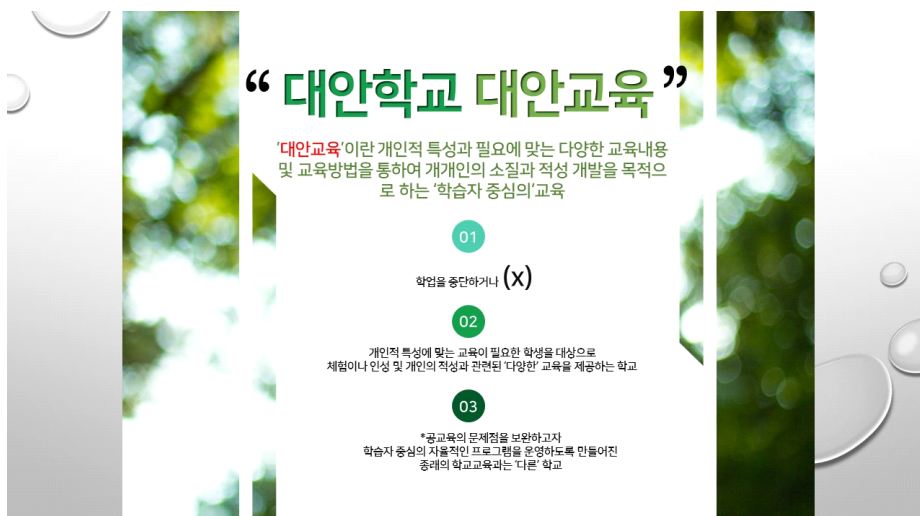
14) 대안교육기관법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5) **대안교육기관 학교마다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특색을 살리도록 도와야 한다.**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 교육공동체, 경험, 자유, 자치, 노작, 여행, 인문, 통합, 평화, 평등, 생태 같은 초기 가치들이 구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안정되고 있는지 학교마다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또한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기 주도 학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다양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마을 속 연계 교육과정 또는 마을 속 교육과정, 생태 전환 교육과정이 인지교과와 표현교과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교육 현장마다 살펴야 한다. 미래교육현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돕는 공적 지원도 절실하지만, 대안교육기관 스스로도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고 안정된 교육과정과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학생들의 성장을 일구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VI.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란



〈교육부 블로그, 2021. 11. 26〉

“아이를 학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학교를 맞춰야 한다.”

- AS.NEIL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 않는 교육”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떠나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밖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1년 1월 12일) 제정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진일보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인 대안교육기관학교 재학생에게도 대한민국 모든 학생과 동일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지원이 당연하다. 2023년 교육부의 업무 보고에는 학생 맞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교육부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학생맞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혁신 지원

가정맞춤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추진

지역맞춤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규제혁신·권한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산업·사회맞춤 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핵심 첨단분야 인재육성

- ☑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순차 발표

입법
교육개혁 입법 추진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선택지가 많은 것이어야 하고, 작은 규모이어야 한다. **배움의 속도가 저마다 다르고, 관심과 흥미가 또 다른 특성을 보장하는 교육기회는 미래교육의 핵심이다.** 다양한 특성을 보장하는 수많은 학교가 있다면 맞춤형 교육 기회를 그대로 열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와 플케회어스콜레를 떠올리곤 한다.

〈덴마크는 약 580만 명쯤이 살고, 반도, 큰 섬,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회계의 나라를 만들어낸 북유럽 교육선진국이다. 일찍이 새마을운동에 영감을 준 달가스의 국토부흥운동이 있었고, 국민체조의 원형이라는 닐스북 체조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룬트비와 콜이 설립한 삶을 위한 교육, 삶을 위한 학교 정신은 우리나라에 1958년에 설립된 위대

한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까지 이어져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갱이어에 착안해 2016년 도입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도 따져보면 덴마크 교육의 영향이다. 2015년 시작해 8년 동안 이어진 경기꿈의학교, 서울시교육청의 오딧세이학교 또한 덴마크 교육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정책이다. 덴마크 그룬트비의 삶을 위한 계몽운동과 덴마크 협동조합운동, 덴마크 교육은 현재 덴마크 복지사회를 만든 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신뢰의 덴마크 행복사회를 만들어냈다. 교육이 사회를 바꾸고 신뢰할만한 나라를 만들어낸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험이 있는 곳이 덴마크다. 헌법에도 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중3과 고1 시기 학생들에게 1-2년 안식년을 주는 전원형 기숙학교인 애프터스쿨레, 고3시기와 성인들이 어느 때든지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달한 시민대학인 폴케히어스쿨레처럼 6-3-3-4제 단선형 교육체제가 아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시간이 충분한 특별한 제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처럼 민간이 설립하는 프리스쿨레(자유학교)는 국가에서 75%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 누구든 지역사회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교육부는 학교 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 덴마크 사회와 교육의 밑바탕에 살아있는 철학과 교육 실천은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이 가고 있는 나라다.)

줄곧 반복하고 있지만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학생 모두에게 동등해야 한다.** 공교육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에 상응하는 예산을 대안교육기관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도 배정해야 한다. 이는 대안교육기관학교이든 학교이든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예시:위기학생 및 학업중단예방 강화사업) 교육청마다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한 사업대상에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기관 재학생 포함)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표 2-1〉 학습자 정의에 따른 학교 밖 교육의 범주

학적 여부	학습자 정의	학교 밖 교육
학적이 있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재학생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및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①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②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고교학점제로 학점이 인정되는 학교 밖 학습경험: '지역사회 기관' 및 '공동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장이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여 위탁된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적이 없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미(비)인가 대안교육 시설·법인 또는 단체(「미(비)인가대안교육시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의무교육단계 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모든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5.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나 시·도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프로그램('경기꿈의학교' 등)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치로 대안교육기관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고 나서 등록을 맡은 교육청과 그동안 재정지원을 맡아 온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에게 재정지원 의무를 떠넘기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법률의 제정 취지대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모색해야 하는데, 일부에서 법률의 미비와 과도기 상황을 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처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취지에 맞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처럼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교육경비 조례)’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개정을 통해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안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2016.8.29)에 따라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있고, 교육은 행복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규칙) 현황(2023년 6월)

작성: 대안교육연대 사무국(2023.06.30.)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조례(규칙)명	종류	제정/개정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2004. 1. 15.(제정) 2017.12.18.(일부개정)
2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2023. 1. 12.(제정)
3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2020. 7. 15.(제정) 2022.1.3.(일부개정)
4		경기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2019. 3. 13.(제정) 2021.7.14.(일부개정)
5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2018. 1. 12.(제정) 2019.7.16.(일부개정)
6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규칙	2003. 11. 15.(제정)
7	김포시	경기도김포시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김포시조례	2019. 7. 26.(제정) 2021.11.8.(일부개정)
8	시흥시	경기도시흥시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경기도시흥시조례	2019. 3. 11.(제정) 2020.2.22.(일부개정)
9	양주시	경기도양주시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경기도양주시조례	2019. 9. 23.(제정)
10	양평군	경기도양평군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양평군조례	2019. 7. 1.(제정) 2020.6.22.(일부개정)
11	하남시	경기도하남시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하남시조례	2019. 7. 1.(제정) 2021.9.24.(일부개정)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지정 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2003. 11. 15.(제정)
1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2013. 1. 2.(제정)
14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상남도조례	2022. 7. 7.(제정)
15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2018. 6. 7.(타법개정)
16	영덕군	경상북도영덕군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경상북도영덕군조례	2020. 10. 23.(제정)
1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조례	2023. 5. 18.(제정)
18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교육규칙	2023. 11. 10.(제정)
1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광주광역시교육규칙	2003. 9. 27.(제정) 2008.8.27.(일부개정)
2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교육규칙	2003. 12. 10.(제정) 2013.8.21.(일부개정)

연번	시도명	자치단체	조례(규칙)명	종류	제정/개정
21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21. 12. 29.(제정)
22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대전광역시조례	2019. 8. 9.(제정)
23		대전광역시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2022. 4. 15.(제정)
2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조례	2022. 4. 13.(제정)
2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2021. 12. 10.(제정)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2012. 7. 12.(제정) 2022.11.22.(타법개정)
27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강원도원주시조례	2022. 10. 12.(제정)
28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전라남도교육규칙	2003. 9. 8.(제정) 2012.12.20.(타법개정)
29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라남도조례	2022. 12. 22.(제정)
30	여주시	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라남도여수시조례	2022. 12.30.(제정)
31	순천시	전라남도순천시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순천시조례	2023. 3. 31.(제정)
32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라북도조례	2016.12.30.(제정) 2018.6.29.(일부개정)
33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교육규칙	2003. 10. 27.(제정) 2007.7.20.(일부개정)
34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 등에관한규칙	충청남도교육규칙	2003. 11. 10.(제정)
35	공주시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공주시조례	2023. 3. 15. 제정
36	금산군	충청남도금산군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충청남도금산군조례	2023. 3. 20.(일부개정)
37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충청북도교육규칙	2003. 10. 15.(제정)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 2023년 6월 30일 현재
-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연번	법률안명(핵심)	대표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제안회기	소관위	심사진행단계	비고
대안교육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 불가, 교원 임용 불가)	소병철 (민주)	2021- 05-18	제21대 제387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1.07.12.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 입법예고 등록의견(10건): 찬성 4, 반대 6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이 제공 받아 대안교육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김영주 (민주)	2021- 08-05	제21대 제389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1.11.16. 교육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 - 입법예고 등록의견(65건): 반대 100%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강득구 (민주)	2022- 07-21	제21대 제398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2.08.22.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2023.06.23.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 입법예고 등록의견(26건): 찬성 1, 반대 25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정경희 (국힘)	2023- 02-13	제21대 제403회	교육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3.05.16.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2023.06.23.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 입법예고 등록의견(21건): 찬성 2, 반대 19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토론

서울지역 대안교육의 성과와 과제 - 서울지역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

송민기 서울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



I. 서울지역 대안교육의 특징¹⁾

○ 도시형 대안학교의 등장

서울지역 대안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형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음.

기숙형 전원형 대안학교가 대표적인 대안학교의 모델이었다면 서울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로 당장 어려움에 처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적 소외와 돌봄의 부재에 긴급 대응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되었음.

부모의 실직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조부모에게 맡겨지거나 학교를 떠나는 아동·청소년이 급증하였음. 학교를 대체할 공간이 필요했던 이들은 야학이나 공부방, 청소년 공간으로 찾아가기 시작했고 시민의 후원을 바탕으로 교육과 돌봄을 교육활동가들이 실천하면서 도시형 대안학교가 등장했음.

- 야학 청소년교실: 남부야학 청소년교실과 은평야학 청소년교실

1973년 서울 신림동에서 중학교 과정으로 시작한 남부야학은 2000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을 위하여 남부야학 청소년교실을 개설했음. 남부야학은 청소년 대상 방학특강과 나눔터 수업을 진행하다가 2001년 8월 남부야학 청소년교실을 탈학교 청소년교실로 독립 개설하였음.

- 도시형 대안학교: 최대 42개소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사태로 가정 해체가 급증하고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이 늘어나자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을 도우려는 대학생과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모였음. 1999년부터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검정고시와 문예체 교육활동, 상담지원 등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4월 최초의 도시 속 작은학교를 개교했음.

그 당시 대안학교는 모두 지방에서 기숙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도시 속 작은학교는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학교의 틀을 갖춘 형태인 도시형대안학교로서 가능성을 열어주었음.

- 징검다리 거점공간(2008~): 최대 17개소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10여 년간 축적된 도시형 대안학교의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몸과 마음이 공부할 준비가 되지 못해 도시형 대안학교에도 입학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단기 체험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사업이었음. 학교를 떠났거나 떠날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해 나가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음.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언제라도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화·거리 상담을 진행하였음. 학습 상담을 통한 학습 지원과 진로설계·탐색·진로교육, 생활교육 등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성장을 지원하였음.

1) 이상화, 2021, 「서울지역 대안교육운동의 형성과 전개」 26쪽,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 향연 지원사업.

II.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전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 지원 정책의 경험

- 1990년대 이래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울의 비인가 대안교육은 다양한 교육모델을 만들어 내며 성장해 왔음. 지방 기숙형 대안학교를 도시에서 시도하여 도시형 대안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냈고, 이후 전일제 대안학교도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 징검다리 거점공간을 만들어 냈으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험은 모범사례로 널리 소개되었음.
- 서울특별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과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서울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지원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왔음.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 신설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19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신고제를 시행하여 2022년 8월 현재 대안교육기관 59개소가 신고를 마쳤음.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민간 영역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이 20년 만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의미가 있음. 또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 대안교육기관과 서울시 행정의 보여준 민관 협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되었음.
-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은 서울의 대안교육기관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과 지역사회 개방성을 촉진함으로써 대안교육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서울시를 학교밖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도시로 돋보이게 했고, 다른 지역에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게 하였음.

III. 사단법인 서울대안교육협의회를 창립: 2022. 4. 7.

- 입시교육을 넘어서 어린이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장을 위하여 대안교육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 대안교육의 오랜 숙원이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올해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을 법으로 인정하는 시작이기에 교육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성찰하여 다듬어야 하고 밖으로는

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책무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들이 손잡고 서울대안교육협의회를 만들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며 모였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고, 교육의 다양성과 교육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힘쓰겠습니다. 이는 대안교육의 성장과 성숙을 넘어 공교육에도 건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교육이 더욱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안교육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교육 백년대계에 밑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설립취지문)

IV. 대안교육기관 법 제정 이후 서울시와 교육청의 대안교육 정책 혼신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추진
 - 서울특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19.9.26.)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관리 및 지원하여 왔음.
 - '22.1.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갖게 되었음.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이 교육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
 - 이에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안」을 2022. 8월 서울시의회에 발의함.
-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의 장벽
 - 대안교육기관법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록운영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징수, 교육 위탁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다만, 대안교육기관법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점이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였음
- 서울시와 교육청 틈에 끼인 대안교육기관의 어려움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안교육기관들은 법 제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없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교육감이 갖게 되었으니 서울시 조례는 필요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재정지원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장벽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의 틈에 대안교육기관은 끼어 있었음.
- 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와 교육청의 권한·책무의 이관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가 컸음.

V. 서울지역 대안교육 경험을 통해 본 대안교육의 과제

-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
 - 2010년 이후 대안교육의 주요한 쟁점은 커져가는 대안교육 수요를 제도권에서 수용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교육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명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절실함.
 - 국가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대안교육의 성과가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대안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²⁾
 - 20년의 성찰에서 드러난 대안교육의 현 위치는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대안교육자들은 판단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자들은 다양한 방향을 제안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음. 예컨대, 미래 지향적인 ‘대안’의 의미 재구성, 90년대 방식의 학교 체제와 교육과정이 가진 시대적 불일치, 학생과 학부모 세대 변화에 따른 교육 변화 등 다양한 또 다른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음.
-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상생
 -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의 감소, 인구절벽의 위기는 공교육, 대안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위기임.
 -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임.
 - 공교육·대안교육의 상호작용과 상생을 통한 새로운 비전 모색 필요함.

2) 허창수, 2021, 「한국 대안교육의 교육철학으로서 비판교육학 논의」,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1권, 제7호, pp.485-486, 2021.

- 대안교육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활성화
 - 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등록 대안교육기관, 비인가 비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밖 청소년 지원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활성화 절실함.
 -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청소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 지원법」, 「건축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종합토론

대안교육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배움을 조직해 나가다

김솔원 대안학교(신나는학교) 학생



나는 8살 때부터 대안학교에 다녔었다. 물론 그 때 나는 너무 어려서 부모님의 뜻이 컸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비인가 대안학교인 꿈틀자유학교를 다니며 학교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나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갔다. 꿈틀자유학교의 교육철학은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는 학교’이다. 나는 철학에 맞게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동체와 융합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한 배움은 사회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며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만큼 학교의 문화도 많은 배움을 줬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노는 것이 원칙이었고, 작게는 팀을 짤 때도 친한 사람끼리만 붙지 않게 무작위로 결정하며 공동체 모두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비폭력 대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며 나 또한 자연스럽게 모두와 어우러질 수 있었고, 공생하는 삶을 배웠다. 이것은 내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느낀 배움이다. 결국 우리는 혼자만 살 수 없기에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는 과정은 단순히 사회를 위한 부분만이 아닌, 개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사회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내가 다니는 신나는학교 역시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신나는학교는 2022년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학교’로 설립한 공립 중고 통합 대안학교다. 신나는학교는 매주 모든 공동체가 모여 진행하는 ‘공동체 회의’를 한다. 공동체 회의는 학교 공동체가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결정 사항을 다 같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이다. 나는 공동체 회의가 신나는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회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전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성을 길러주고, 각자의 의견을 융합하여 더 좋은 공동체로 성장시켜 준다. 학교 설립 후 얼마 안 되었을 때의 공동체 회의는 안전하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서로의 의견만을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형식의 회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안전을 급하게 해치우려다 탈이 난 것 같다. 하지만 신나는학교 공동체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회의의 의사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며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갔다. 현재는 전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회의의 약속이나 방식에서 변화할 부분이 존재하기에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만큼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동체 회의가 학교만 성장시키는 과정이 아닌, 회의에 참여하는 학생, 선생님도 같이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타인과 잘 어우러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은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수업이 먼저 떠올랐다. 인간관계 수업은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안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모두와 어우러지는 중요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나는학교에는 이 외에도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삶과 철학, 국경을 넘고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세상학교 등 다양하게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배우는 수업이 있다.

신나는학교의 비전과 교육철학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나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문구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학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내 삶이기에 나를 알고 돌볼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나는학교는 자기 주도적인 수업이 많다. 예를 들면, 신나는학교에는 개인프로젝트라는 교육과정이다. 개인프로젝트 수업은 학생 각자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수업이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계획부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나는 작년에 내가 세운 개인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달성하지 못했으면 그냥 끝일 줄 알았던 내 생각과는 달리, 선생님은 실패의 요인을 찾아 발표하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발표했다. 실패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니,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보였다. 이 덕에 나는 발표 이후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나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개인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내가 스스로 마지막까지 완성 시킬 수 있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던 것이다. 신나는학교에는 아예 ‘자립’이라는 수업이 존재하는데, 그 수업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옷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밭을 가꾸는 수업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는 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배우냐는 의견이 들리곤 한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만약 배운 내용을 쓸 일이 없다고 쳐도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책임져 보는 것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자립 수업뿐만 아니라 신나는학교의 대부분의 수업환경은 자립심을 키우고, 학생 주도적인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의도한다. 학생의 건강, 위생, 안전에 관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약속은 학생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고, 학교에서 가는 여행 계획은 물론, 학교의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같이 만들 수 있다. 학교 수업 또한 선생님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닌 선생님의 도움 아래 스스로 탐구하며 깨달음을 얻도록 진행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만 하며 배우는 것이 아닌, 나의 배움을 직접 찾아가며 자립심을 기르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의 주관을 갖도록 하는 배움이기 때문이다. 신나는학교는 그래서 1년차인 어울림 과정을 지나고 나면 자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제안하고, 그 수업 개설의 이유와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평가방식까지 제안하는 ‘교과장터’가 열린다. 선생님들도 자신이 만들어 보고 싶은 수업을 교과장터에 제안하신다. 그러면 그 장터에서 흥정이 일어나면서 서로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통합됨으로써 구체적인 수업으로 다듬어진다. 물론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고 수강생들이 담당 교사와 함께 수업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더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신나는학교는 짜여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나의 배움을 짜 나간다는 의미에서 ‘직조형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씨줄 교육과정과 날줄 교육과정을 교차시키면서 배우기 때문에 학교의 상징 기호는 #이다. 이 기호를 ‘샵’으로 읽던, ‘우물정’으로 읽던, ‘해쉬태그’로 읽던, 세대 별로 개인 별로 서로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읽고 그 것이 받아들여지는 주체성과 다양성의 학교에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배움을 짜 나가는 중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은 경험이다.’는 나의 인생 명언이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지혜가 쌓이고 점점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신나는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1기이다 보니 학교가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입학 후, 역시 내 예상대로 신나는학교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학교가 자리 잡으며 얻는 배움이 많았다. 학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드는 과정,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은 학교와 나를 성장시켰다. 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고찰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교사와 학생들이 자기 수업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마다 달라지는 수업들과 1년마다 바뀌는 교육과정은 나를 매번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어떤 분야를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수업 안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며 경험치를 계속 쌓아 갔다. 초등학교 때는 비인가 대안학교여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활동을 계획할 때 아주 적은 예산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활동, 수업을 찾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 매우 적게 한정되는 것에 관한 아쉬움이 크게 존재했다. 공립 대안학교인 신나는학교에서는 계속 다양하고 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나의 시선에서는 전에 비해 신나는학교의 환경은 훨씬 풍요롭게 느껴졌고, 그 소중함을 알았기에 학교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나는 신나는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이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찾게 되었는데, 그 분야는 ‘환경’이다. 현재 전국의 학생들은 상태가 더욱 심각해진 지구를 맞닥뜨려야 할 세대이다. 하지만 지구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진정한 미래교육은 코딩, 인공지능보다 지구를 지켜서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 진정한 미래교육이자 대안교육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신나는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육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처럼 대안교육을 받는 우리에게 관한 생각, 대안교육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줄곧 해 왔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대안학교를 다니며 얻은 배움을 기반으로 고민하며 학교가 주는 배움을 흡수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신나는학교를 다니며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은 수업 시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문화와 철학을 만들어 가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깊이 생각하는 과정도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며 자립심을 기르고, 그 생각이 나 혼자만의 이득이 아닌 더불어 살 수 있는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충분히 채워지는 것 같다.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종합토론

대안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소고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먼저, 대안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본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수은 교장선생님은 공립형 대안학교 구성원들이 대안교육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주셨고, 박성민 연구사님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공교육체제 내에서의 위치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공유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교장선생님은 최근 새롭게 통과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갖는 의의와 동법에 기초하여 대안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언해주셨다. 토론자로서 필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하여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을 미래형 대안교육의 틀을 가지고 제언하는 것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도권 내 미래형 대안교육의 방향성 탐색’이라는 필자의 교육행정학연구 논문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대안교육에 대한 대중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대안교육의 명확한 비전수립을 도와야 한다. 대안교육(代案教育, 영어: alternative education, non-traditional education, educational alternative)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교육(이종태, 2007: 131)이자, 기존 제도권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일컫는다(위키백과, 2021.11.13.).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의 공교육체제에서 보편화되어있는 교육이념·내용·방법·평가·학교운영 등에 대한 개별적 또는 전체적 비판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른 시도를 추구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된다(이혜영 외, 2009: 22).” 그러나 열악한 대안교육의 재정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안학교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공교육체제에서 이탈하는 학생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공교육의 조력자 정도로 인식되면서 일반 대중이 갖는 대안교육에 대한 인식의 폭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안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대안교육의 역할이 제도권 내 공교육의 ‘더 나은(alternative)’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공교육의 확장 가능성 탐색을 통한 ‘미래(future)’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앞서 발제자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하셨듯 대안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이란 대안학교의 비전인 동시에 공교육의 확장 가능한 미래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대안교육 관련 법률체제의 정비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전정일 교장선생님의 발표에서 충분히 언급된 바 있으나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법률 제 17887호, 공포일 2021.01.12., 시행일 2022.01.13.) 제정으로 우리나라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대안교육기관법상 대안교육기관이 병존하게 되었다. 대안교육 기관의 법제화의 이정표와도 같은 역사는 1998년 대안교육특성화학교, 2005년 대안학교(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60조 3), 그리고 특별법으로서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 아동·청소년들의 교육기본권을 공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는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이 빠져있다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법률제정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법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해당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지정되고 위와 같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수는 교장선생님이 지적하셨던 대안교육의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정 사항에 막연하게 적용되던 기준이 다소 명료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대안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 분의 발제자께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지적하신 내용이다.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지점을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공교육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맞춤형교육의 접근법과, 공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미래형 공교육체제의 모색의 어느 지점에 두더라도 성공적인 대안교육 모델의 구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이 거버넌스의 구축을 고민할 때 우리는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를 창의적으로 디자인(design)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필자가 수행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구축’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 개입,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성장을 도모하는 것((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선도학교용, 2023)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지원영역은 다음과 같이 매우 포괄적이다.

❖ 지원영역

복지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가정방문, 지역 연계 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학업·진로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u>학업중단숙려제</u>), 대안교육(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심리·정서 지원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다문화·특수교육	다문화가족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 지원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은 다른 아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의미한다. 해당 거버넌스의 구축은 학교 내외에 있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적인 소통을 통해서 학생이 한 명의 건전한 시민으로 길러지는 데 필요한 도움을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 파악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고, 학교 내외의 가용 자원을 통합적으로 동원하여 학생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적화된 도움이란 반드시 학교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유관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법령 제정(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는 기존의 굳어진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으로는 대안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거버넌스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학교를 둘러싼 행정 단위의 경계를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벽을 허물어야 하고,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간 엄격하게 구획되어 있는 역할분담 체제를 넘어서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 경계선도 허물어야 창의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안교육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상의 토대가 구축된다는 조건 하에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이 갖추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은 과거 학생의 부적응에만 초점을 맞춰 ‘대상’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바라보았던 것과 달리, 근대학교의 한계를 넘어설 교육의 실험으로서 육성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대안교육의 유형은 치유형, 전환형, 미래형 등의 유형별로 다양하게 모색됨으로써 대안교육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권 교육으로서의 전환학교는 전환기 청소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생 수 감축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래형 학교는 공립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선구적 모델로서의 시범운영을 통해 공립학교의 시대정신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립학교의 혁신을 유도하는 증폭제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이길재 외, 2022).

둘째,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은 ‘학생 맞춤’ 교육과정을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메트스쿨의 커리큘럼디렉터에 의한 개별적인 교육과정 편성, 어드바이저와 멘토의 학생 맞춤형 접근,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공동체의 피드백 제공은 모두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주체적으로 배움의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안교육의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면 학교마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요소를 담은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 대안교육의 정체성(identity)을 결정하는 것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형 대안교육 모델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혁신적 교육경험 사례인 메트스쿨에서는 학교 밖 현장을 통한 인터십 과정을 5~6개월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문적 경험을 쌓고 학문적 능력과 기술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고 있었다. 알트스쿨 역시 학생들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실생활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밖 지역사회를 주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를 교육공동체로 참여시킴으로써 학교 밖의 실제적인 경험을 학교 내의 정규교육과정과 연계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이 학교라는 경계선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들만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형 대안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교육자이자 학습자로 융합되어 공존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안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은 교육혁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대안교육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개인맞춤형교육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는 초유의 경험을 해야만 했고 그 경험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는 자기주도적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으며, 학생과 교사 간 원격 소통은 이제 필수적인 전달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미래형 대안교육의 사례에서는 자율적이고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각종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포럼 23-05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인 쇄 2023년 9월 20일

발 행 2023년 9월 2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